메아리 없는
종소리

국군포로들은 왜 못 돌아오는가?

정용봉 지음





지은이 **정용봉 박사**

정용봉 박사는 대한민국 경남 진영에서 출생.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육군종합학교
(전시사관학교) 8기로 육군소위로 임관,
국군 제8사단 16연대에 배속 근무중
양구전투에서 부상.
수도육군병원에서 1년 동안 치료받은 후 제대.
1958년 미국 유학. University of Montana,
Cal State University at Long Beach에서 수학.
Southern Illinois University(S.I.S) 석사.
UCLA에서 경제학박사과정 수료.
S.I.S.에서 명예 경제학박사.
현재 미주국군포로송환위원회 회장으로서
북한 억류 국군포로 송환 운동.
시사, 경제문제에 대한 기고 활동.
미주극동문제연구소 이사장.
BBCN Bank전신 나라은행 이사장 역임.
미주이민100주년기념사업회(LA) 공동회장 역임.
현재 His & Her Hair Goods Co. 운영 중.

“그들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렸나 ?.....”

메아리 없는
종소리

국군포로들은 왜 못 돌아 오는가

정용봉 지음

미주국군포로송환위원회

추천사

심장 속에 남는 분, 심장 속에 박힌 분들

사람이 살다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분들을 만나고, 헤어지지만 유독 잊혀지지 않고, 생각할 때마다 고개가 숙여지는 분이 있다. 바로 정용봉 회장님이다.

'심장 속에 남는 이'는 북한의 대중가요, 아니 김정일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노래다. 그러나 이 노래가 누구를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꽃분이'가 덕수의 잃어버린 누이의 이름이든, 남궁옥분이 부른 노래 제목이든, '꽃분이'라는 이름 자체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그저 아련한 향수와 정겨움으로 다가오듯이, 내게는 '심장 속에 남는 이'라는 노래를 들었을 때 반사적으로 정회장님 얼굴이 떠오른 것을!

모든 것을 이념 논쟁으로 대립각을 세우려는 사람들에게는 껄끄럽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정회장님은 내 심장에 남았고, 정회장님 심장 속에는 6·25 발발 65년이 지나도록 조국과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하늘만 뻥 뚫린 탄광촌에서 진폐증으로 녹아버린 가슴을 쓸어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군번과 눈에 선한 고향집 주소를 외우고 또 외우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그래서 쉬이 눈도 감을 수 없는 국군포로 수 만 명의 이름, 한 자 한 자가 인두로 지져낸 듯, 단단히 옹이 박혀 있을 것이다.

UN이 이제서야 김정은을 ICC에 제소할 생각을 하지만, 정회장님은 이미 오래 전에 그의 아비 김정일을 ICC에 제소하셨다. 법학자들조차 전쟁 야기범인 김일성이 죽었는데 어찌..., 하며 소극적이었지만, 국제사회는 10년이 지난 오늘날 그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정회장님은 선각자요 선지자다.

봄이 오면 사라져버린 이름들이 문신처럼 떠오르듯이, 6월이면 심장 속에 박힌 분들이 홀연히 살아 숨쉬는 그 아린 경험을 어찌 나만 했겠는가.

정회장님의 심장은 6월이 되면 그래서 더욱 분주해질 것이다. 우리가 살아서 단 한 분이라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국군포로를 모셔올 때 비로소 역사를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겠는가?

그 용기와 심장 속 옹이들이 이 책 한 권에 알알이 녹아 있으니, 이 책을 읽는 것은 어쩌면 역사의 조난자들을 잊고 사는 우리 미생들, 모두의 의무이리라.

2015년 5월 3일

박선영(동국대 교수,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

추천사

‘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대한 지침서가 되기를’

나는 미국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인권문제에 관심이 있어 2009년 여름에 법과대학을 시작하기전 남가주에 친지를 만나러 오는 계기에 정용봉 박사를 처음 만나게 됐다.

나는 애초 정용봉 박사는 몰랐으나 정 박사가 설립한 ‘미주국군포로송환위원회’라는 단체를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 단체가 탈북 국군포로 조창호 중위를 미국 의회 청문회에 증언하도록 준비를 한 단체였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 청문회를 주선할 정도의 단체라면 굉장한 규모와 아주 활발한 조직체가 아닌가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정용봉 박사를 직접 만나본 후, 비록 주위에 친지들이 협조는 하지만, 이 조직체를 거의 정용봉 박사가 이끌고 있음을 알고 매우 놀랐다. 그 후에 나는 정 박사 자신도 탈북 국군포로 조창호 중위처럼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사실도 알았다. 또 나는 정 박사가 국군포로 송환운동에 헌신한 이면에는 정 박사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인지했다. 전쟁터에서 사라진 자신의 부하들이 북한에 국군포로로 남겨졌다는 사실을 잊을 수가 없었다.

북한에 억류된 5만명 이상의 국군포로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겪은 고충은 필설로는 다 할 수 없다.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아픔, 북한 광산에서의 수년간의 강제 노역으로 인한 학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북한에서 국군포로들은 북한에서 강제 결혼에 의해 태어난 자신들의 자식들이 겪는 학대를 지켜보는 것 자체가 가슴 아픈일이다.

북한 공산정권이 그처럼 부당한 불의를 저질르고 있을 때 과연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우리의 정치지도자들과 정부가 북한

에 남아있는 국군군포 문제 해결에 실패했을 때 과연 한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지난 10여년 동안 이들 정 박사는 국군포로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한 인권문제를 옹호해왔으며, 탈북 국군포로들이 그들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들의 삶을 우리 사회에 이야기 하도록 노력해왔다. 또한 정 박사는 국군포로문제를 우리 정부에 호소하고 미국 등 국제적인 기관에게도 도움을 호소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 박사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 정용봉 박사가 펴낸 책은 우리 땅에서 비극적인 국군포로들의 문제가 발생한 역사적인 상황을 세세하게 기록했으며, 국군포로송환 문제가 얼마나 해결이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잘 말해주고 있다. 특히 이 책은 앞으로 국군포로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매우 귀중한 지침서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정 박사처럼 모든 사람들이 국군포로송환운동에 나섰다면 아마도 큰 진전이 있었으리라 믿는다. 하지만 한국전쟁 휴전이 이뤄진지 60여년이 흘렀고, 최초의 탈북 국군포로였던 조창호 중위가 고향 땅 조국 대한민국에 돌아온지 20년이 흘렀건만 국군포로문제는 아직도 아주 미미한 진전이 있었을 뿐이다.

지난동안 수십여명 이상의 국군포로들이 탈북하여 조국 한국으로 돌아왔으며, 또한 국군포로들의 자녀들도 수 백 명이 탈북해 한국으로 왔으나 남한의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기에는 여러모로 난관이 많다.

또한 아직도 북한에 남겨진 국군포로들이나 그들의 자녀들은 계급사회인 북한에서 최하위 성분으로 남겨져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같은 북한정권의 인권 부당성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벌써 세대를 거쳐서 지속되어고 있다.

나는 이 책이 단순히 국군포로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당한 부당한 역사의 일지를 넘어서 귀중한 문헌이 되기를 희망한다. 무엇보다 이 책이 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대한 지침서가 되기를 바라며, 실지로 국군포로들이 송환되는 계기가 되기를 절실히 원한다.

2015년 4월 30일

김한회 변호사(공학박사)

추천사

한국전쟁의 참된 역사와 의미를 후세에...

올해는 6·25 전쟁이 발발한지 65 주년이 되는 해이다.

어릴적 기억이지만 그 때에 보고 겪었던 모든 장면들은 생생하다 못해 지금 바로 내 앞에서 바로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파란눈, 노랑머리, 6월 뜨거운 햇볕에 발갛게 익어버린 얼굴, 땀에 찌든 낡은 카키색 군복. 신발도 없고 양말도 없는 맨발바닥으로 끓은듯이 뜨거운 아스팔트 길 위를 양손을 머리뒤에 얹고서 양쪽 발목은 앞뒤사람들을 연결해 놓은 쇄사슬로 묶인채, 끝도 보이지 않게 긴행렬을 따라, 따발총으로 무장한 북한인민군의 감시를 받으며 쓰러질듯 넘어질듯이 걷고있었던 젊은이들…

바로 한국참전 UN군 포로들의 죽음의 행렬이었던 것이다. 이들 중 살아남은 포로들은, 정전 후 (대부분은) 그가 살던 고향나라로 돌아갔겠으나, 내 나라를 지키려고 싸우다가 포로가된 국군은 본 기억이 없는 것 같다.

얼마나 많은 국군포로들이 북으로 끌려갔으며 어떤 고통을받으며 살아왔는지, 아직도 살아 고통받는 이름모를 애국자들이 얼마나 있을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정부의 정확한 자료도 없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망향의 원혼이 되어 하늘을 떠돌게될 것이다. 시간위에 사활이 걸린 문제들인데, 정부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개인으로는 여러가지 사회구조적 제약, 재정적인 면에서 행동에 나서지를 못했었다.

이럴즈음, 본인의 사회 대선배이시며, '멘토'(Mentor)이신 정용봉박사께서 이 일에 관심과 열정을 보이시며, 비영리단체 "국군포로송환위

원회"를 결성하시고 한인커뮤니티는 물론, 미주류사회와 정계, 특히 미 연방국회 하원청문회, 나아가서 UN인권기구에까지 찾아다니시며 성토하시고 부르짖으며 이 참담한 사실들을 세상에 알리셨다. 이에 한국정부도 더 이상 침묵하지 못하게 되었고, 언론은 물론,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기까지 되었다.

역사는 만들어가는 것이지, 쓰는것이 아니다. 비록 조그만 역사지만 우리 후세들은, 이 책을 통하여 선조의 의리와 용기를 찬미하고, 그들 또한 이런 정신을 배워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올해로 미수(米壽)를 맞으시는 저자인 정용봉박사님은 의지가 대단하신 분이시다. 국군포로송환위원회를 만드시고 이 일의 완성을 위하여 10년 넘게 자료를 준비하시며 일해 오셨다. 늘 근검절약을 신조로 살아오신 평생이시나, 내가 마땅이 해야할 일이라 생각하시면 어떤 것 이라도 계산을 생각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필자가 더 존경하고 배우며 산다.

아무쪼록 이 책이 한국전쟁의 참된 역사와 의미를 후세에도 전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 소중한 책자의 발간을 위하여 수년동안 일선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변홍진 사무총장님과, 전쟁터에서 생사를 같이하며 조국을 지키시던 저자의 옛전우님들, 그리고 끝없이 진부하고 소모적으로 보이기만 했던 이 사업을, 끈질긴 인내와 희생적인 내조로 역사의 한 장(章)을 열게해 주신 저자의 사모님, 샤니 정 여사님께 감사의 뜻과 함께 높은 찬사를 보낸다.

2015년 5월 8일

로스엔젤레스에서 박창규 (전 한미은행이사장)

머릿말

1994년 어느날, 늘 바쁘기만한 미국생활 속에서 한국어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데 조금 기이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대한민국 육군의 정식예복에 구(舊) 소위 계급장을 부착한 마치 미이라처럼 마른 노인 한 분의 모습이 나타났다. 70세가 넘어 보이는 그분은 앞에 서있는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거수경례를 하면서 "군번 00000, 육군 소위 조00 오늘부로 본대에 복귀하였음을 여기 신고합니다"라는 뜻의 말을 하고 있었다.

참 이상한 장면이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화면을 계속 보고 있었더니 "북한에 오랫동안 포로로 잡혀있다가 목숨을 걸고 탈출, 40여년만에 조국의 땅, 대한민국으로 왔다"는 조창호라는 분의 이야기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 탈북 국군포로 조창호씨의 말에 의하면 "아직도 북한에는 많은 국군포로들이 억류되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TV 아나운서의 해설이 덧붙여졌다.

6·25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필자는 한국전 정전협정에서 양측이 수용했던 포로들을 각자의 의사에 따라 모두 돌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북한에 아직도 많은 국군포로들이 억류되어 있다니, 이것이 무슨 기괴한 소리인가!

그리고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그 많은 국군포로들 중에는 나와 함께 전투하다 실종된 내 부하들, 특히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나를 지켜주었던 나의 연락병, 그리고 친형제보다 더 아꼈던 고향 친구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기대감이 떠올랐다.

그래서 나는 꼭 포로들의 억류 여부의 진상을 알아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그들의 석방과 송환을 위해 전력투구하자고 다짐하여 '국군포로 송환위원회'를 조직했다.

그때부터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군포로의 송환을 위하여 미국 국회로, 한국 국회로 다니며 건의했고, 또한 나름대로 정치력이 있다는 한국과 미국의 정계 요인들을 만나 호소했다. 그리고 영향력있는 언론사들도 방문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전 포로들의 석방의 당위성을 제기하였다. 이렇게 호소하고 애원하며 지난지도 어언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대한민국으로 탈출해 온 81명의 탈북 국군포로 이외에는 우리의 힘으로는 단 한사람의 억류포로도 구출하지 못했으니, 그 자괴지심은 실로 말할 수 없다.

10년이라는 짧지 않은 귀중한 시간과 개인적으로 지출한 적지않은 재정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미약한 힘으로는 북한의 그 견고한 폐쇄의 굳은 문을 도무지 열 수가 없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6·25전쟁에서 조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였을 때 "조국을 지키라"는 대한민국 정부의 절박한 절규에 호응, 목숨을 걸고 조국과 겨레를 지켰던 분들이 바로 참전용사들이다.

그러나 그들 중 적지 않은 수의 국군이 불운의 포로가 되어 평생을 동토의 북한 땅에서, 갖은 핍박과 멸시 속에서 오직 조국으로부터 구호의 손길을 학수고대하며 살아가다 한 많은 삶을 마감했을 것을 생각하면 실로 가슴이 아프다.

(필자는 수차례 전투에서 포로가 될 위기를 필사적으로 탈출했는데, 만약 내가 그때 포로가 되었다면 아마도 평생을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남쪽 하늘만 바라보다 아무런 구호의 소식도 없는 조국을 원망하면서 한 많은 볼모의 삶을 마감해갔을 것이라고 때때로 상상한다.)

이 책은 필자가 국군포로로 북한 땅에 억류된 불행한 나의 전우들을 위하여 "왜 우리 국군포로들은 돌아오지 못하는가"를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썼다. 또한 잊혀져가는 그들의 존재와 실상을 알리고, 우리가 꼭 이뤘어야할 일을 못 다한 데 대한 자책과 그것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붓을 든 것이다.

끝으로 지난 10년동안 나의 그림자처럼 곁에서 국군포로 송환운동에 헌신해준 변홍진 사무총장, 국군포로 송환위운동에 첫 길잡이가 되어 주신 김봉건 전 재향군인회미서부지회장, 전 법률적인 문제를 도맡아 국군송환문제를 ICC(국제형사재판소)와 UN인권위에 제소하도록 해준 김한회 변호사, 여러가지 참고자료들을 수집하는데 힘 써주신 황규복 학우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또한 이 포로송환운동에 항상 나를 격려해주신 박창규 박사를 포함해 국군포로송환위원회의 활동을 도와준 이사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특히 무엇보다 송환운동으로 가업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많은 경제적 부담을 안겼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묵묵히 나를 격려하며 내조한 나의 아내에게 뜨거운 감사와 사랑을 보낸다.

동토의 땅에서 한 많은 삶을 마감한 불운의 전우들에게, 앞서간 그들의 명복을 빌면서…



▲ 6.25 당시 지은이 모습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2015년 4월1일, 88회 생일에
한국전 노병 정용봉

메아리 없는 종소리

(국군포로들은 왜 못 돌아오는가)

초판 인쇄 발행: 2015년 6월 25일

지은이 정용봉(Thomas Y. Chung, Ph.D.)
편집인 변홍진(Tom Byun)

펴낸곳 미주국군포로송환위원회
Korean War POW Affairs-IKWMF
주소 680 Wilshire Place Suite 412
Los Angeles, CA 90005 USA

인쇄 진흥문화(주)

전화 (213)389-1536
팩스 (213)389-1551
Email: chungpow@hotmail.com
tombyun@yahoo.com

© Thomas Y. Chung 2015
Korean War POW Affairs-IKWMF

ISBN: 978-0-9963301-0-7

메아리 없는
종소리

국군포로들은 왜 못 돌아 오는가?

내용(目錄)

추천사 10

머릿말 16

제 1장 한국전쟁의 발발

A. 한국전쟁의 발발 원인 26
B. 서전부터 낙동강까지 27
C. UN군의 참전 31
D. 인천 상륙 작전과 낙동강 방어전에서 일제 반격 33
E. 중공군 개입 38
a) 중공군 제 1차 공세 41
b) 중공군 제 2차 공세와 그 충격 43
[흥남 철수 작전] 45
c) 중공군 제 3차 공세 48
d) 중공군 제 4차 공세 49
e) 중공군 제 5차 춘계 공세와 좌절 51

제 2장 정전협상

A. 의정 설정 문제 56
a) UN군측 대표단 59
b) 공산군측 대표단 59
B. 정전선 설정문제 60
C. 포로 송환 문제 61
[참고로 본 각국의 포로처리 선례] 62
a) 포로의 정의 (定義) 문제 63
b) 포로의 숫자 문제 64
c) 포로송환 원칙 (송환대상자) 65

제 3장 왜 억류된 국군포로들이 못 돌아 오는가?

A. 국군포로에 대한 북한측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시각
1. 영토와 통치 개념의 차이 72
2.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명령 143호 73
3. 김일성과 모택동의 포로처리에 대한 합의 74
B. 한국전과 당시의 세계 정세 (미국내의 정치적 상황)
1. 미국내의 반전 기운 75
2. NATO의 창설 문제 76
C. 한국 내에서 국군포로에 대한 시각
1. 정전협상에서 한국군대표의 국군포로 송환문제에 대한 노력 76
2. 남한 일반 민간인들의 포로문제에 대한 관심 78
D. 공산측은 가능한 더 많은 국군포로들을 억류하려했다 80

제 4장 탈북 국군포로들의 억류상태에 대한 증언들

a) 고 조창호 중위의 북한에서의 생활과 탈북까지의 이야기 86
b) 기타 탈북포로들의 북한에서의 삶에 대한 수기들 90

제 5장 억류 국군포로들을 위하여 우리들은 무엇을 했나?
..... 92

제 6장 포로문제 해결 방법은 없을까?

a) 엔테베(Entebbe) 식의 구출작전 106
b) "전시중 생사 불분명자"라는 이름으로서 북한과 협상 107
c) Freikauf(돈으로 자유를 산다는뜻) 방법 107
d) UN을 통한 방법 108

제 7장 탈북국군포로들의 현황 (남한에서)
..... 112

제 8장 맺음말 116

부 록 119

※ 참고문헌 자료 일람 216

| 제 1 장 |

한국전쟁의 발발

한국전쟁의 발발

6·25 전쟁을 잘 모르는 젊은 독자들을 위하여 6·25 전쟁(이하 한국전이라 칭함)의 발생원인과 배경을 약간 설명하려한다.

A. 한국전의 발발 원인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함으로써 35년 동안이나 일본 식민지 통치를 받던 우리 조국 삼천리 강산에 광복이 찾아왔다. 그러나 그 광복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조국 한반도는 미소 양대국에 의해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이 분단됐고, 남과 북은 각각 정치, 경제제도를 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질적인 체제로 태어남으로써 한반도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 다음에 일어날 한국전(6·25 전쟁)



▲ 한강다리 폭파로 서울을 탈출하지 못한 피난민들이 목선을 구하여 서울을 탈출하고 있다.



▲ 북한군은 1950년 7월말 낙동강 방어선을 제외한 남한 전체의 90%를 점령했다. (1950. 7. 27)

의 씨앗을 심어놓게 되었다.

B. 서전부터 낙동강까지

1950년 6월 25일(일요일) 소련제 탱크 T-34/85형 242대와 74타입 58대, 야크 전투기와 폭격기 등 200대와 각종 야전포의 엄호 아래 231,000 명의 훈련된 정예부대가 동부에는 오전 4시, 중부에는 오전 2시를 기하여 노도와 같이 일제히 38선을 돌파, 남쪽으로 밀려 내려왔다. 남쪽 대한민국의 총 병력 98,000명(이중 65,000여명이 전투병력)은 전날(24일, 토요일)에 대부분의 병사들이 농번기를 맞아 모내기 도움을 위한 휴가를 갔고, 잔여 병력만으로 탱크 한 대 없이 맨주먹으로 불의의 남침에 대항했으나 3일만인 6월 28일 적이 수도 서울까지 침입하고 말았다.

적의 추격을 늦추기 위해 6월 28일 새벽 2시 30분 예고 없이 한강다리를 폭파함으로써 서울지구에서 전투 중이던 많은 국군들은 인민군의 포



▲ 피난길을 떠나는 3대 가족들 (1950. 8. 7)



▲ 한국전쟁 중 피난지에서 구두닦이를 하는 소년들 (1950. 8. 7)



▲ 우마차를 이용해 피란에 나선 대열 (1950. 8. 7)

로가 되었다. 당시 서울시민 144만6,000여명 가운데 한강철교 폭파 이전에 서울을 빠져나간 사람은 전체 인구의 약 1/4인 40만명에 불과했고, 이들의 80%가 북쪽에서 탈북해온 월남 동포였다.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은 즉시 한강을 건너 국군을 추격하지 않고 서울에서 6월 30일까지 머물게 되었는데 이것은 동부 춘천 전투에서 국군 6사단(사단장 김종호 대령)의 필사적인 저항 때문이었다. 이 2박3일 동안의 지연(서울 체류)은 그 뒤의 낙동강 전선에서 UN군 증파에 시간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었다. 이로 인해 적군은 낙동강선을 돌파할 기회를 놓쳤고, 그 후 UN군의 반격을 허용하게 되어 이것이 나중에 전세를 뒤엎는 시간적 이점을 벌게 하였다.

여기에서 왜 국군이 그토록 쉽게 무너졌는가를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한반도가 양대국에 의해 분단되면서 남쪽에도 많은 공산 지지세력이 준동하여 군대(당시는 국방경비대로 불렸음) 내부에도 많은 좌익 세력들이 침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기습에 의해 한국전이 일어났지만 이러한 정보를 전혀 파악



▲ 밥 짓는 아이들 (1953. 3)

못한 이유는 한국군 정보기관 내부에 많은 좌익분자들이 섞여있어 이러한 정보들을 군 수뇌부에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 증거 자료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당시 국군의 육군참모총장 최병덕 장군의 전속부관이었던 라엄광 중위라는 자는 군적에도 없는 남로당원이었으며(한국전 발발과 동시에 없어졌음) 그가 모든 정보를 가로막아 참모총장이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 좋은 예들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6·25 발발 15일전인 6월 10일에 모든 중화기 및 차량 등을 부평공장으로 수리하도록 후송시켜 6·25때 이것들을 사용할 수 없게 했음.

2) 6월 15일(6·25의 10일전)에 군 지휘관 인사를 단행해 6·25때 지휘계통에 대혼란을 야기시켰음은 물론 같은 날(6월 15일)로 군 부대에 이동 명령을 내렸음.

3) 6·25 하루 전날인 6월 24일에 전 장병에게 휴가령을 내렸음.

4) 6·25 발발 전날인 6월 24일 밤에는 육군회관 개관기념 파티를 열어 고급 장성들이 밤늦도록 댄스와 음주로 지새웠음.

이렇게 하여 6·25전쟁이 일어났을 때 효과적인 응전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한국군의 패배를 피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C. UN군의 참전



▲ 미군기의 융단폭격으로 적의 후방 보급로를 차단하고 있다. (1950. 8.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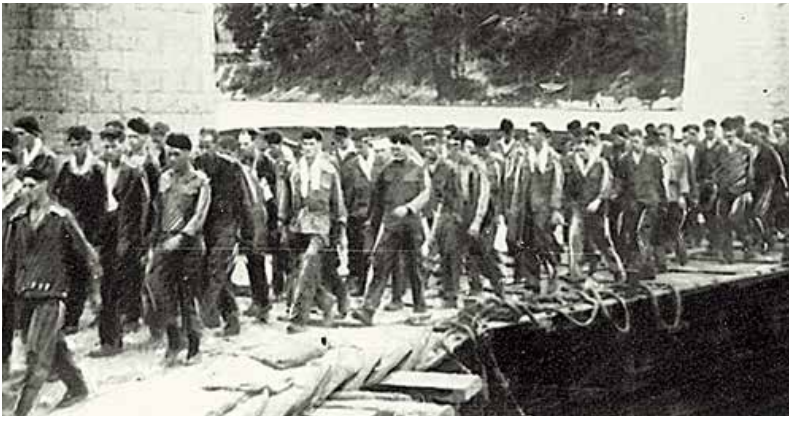
북한군이 6월 25일 전 병력을 동원하여 남침하자 한국정부는 주미 한국 대사 장면 박사와 서기관 한표옥씨로 하여금 즉시 미 국무성에 사태의 긴박함을 알렸고, UN에서는 뉴욕 시간으로 6월 25일(한국시간 6월 26일)자로 대한민국(이후 한국으로 또는 ROK로 표기)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후 북한 또는 DPRK으로 표기)에게 UN 총회결의서 293호(UNG #293)를 발행, 즉시 전투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짜로 UN 안전보장이사회(UN Security Council)는 UN안보리 결의서 82호(UNSC Resl. #82)를[1] 발행, 교전 양국(ROK와 DPRK)에게 즉시 전투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 요구를 묵살, 남침을 계속하여 6월 27일(한국 시간 28일) 서울까지 침입하자 UN안전보장 이사회(안보리로 줄임)는 북한에 즉시 북위 38선 이북의 원위치로 북한군을 철수시킬 것을 UN 안보리결의서 #83[2]로 강력히 경고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은 이를 완전히 무시했고, 남침은 계속되었다.

---

1 별첨부록 A (Appendix A) 참조

2 별첨부록 A (Appendix A) 참조



▲ 전쟁에서 포로가 된 미군병사들이 북으로 끌려가고 있다.

한편 미 행정부는 이 결의안이 가결되는 동시에 즉시 해리 S. 트루먼 대통령(Harry S. Truman 미 33대 대통령)이 미 극동군 총사령관인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General Douglas MacArthur)에게 "남한에 대한 해군과 공군의 지원을 즉각 개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 극동제 7 함대는 대만을 지키기 위하여 즉각 대만해협으로 급파했고, 맥아더는 6월 29일 일본 하네다에서 비행기로 한국의 전 전선을 직접 시찰, 즉시 워싱턴에 지상군의 투입을 요청하였다.

한편 이승만 대통령은 7월 14일자로 한국군(ROKA)의 지휘권을 맥아더 장군에게 위임한다는 서한을 보냈으며 7월 17일에 그가 이를 수락한다는 회신을 보내옴으로써 한국군의 지휘권이 UN군 총사령관에게로 넘어갔다. 일방 유엔안보리(UNSC)는 부득이 7월 17일 UN회원국들에게 북한의 계속 되는 남하를 저지하기 위한 지원 병력을 요청, UN안보리 결의서 #84[3]를 통과시킴으로써 유엔군(UNC)이 창설되었다.

이 유엔군(UNC)산하에는 한국군 외에 16개국이 참전했다.[4] 그리고 곧이어 안보리 결의서 #85호[5]에 의해 미 극동군 총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이

3 별첨부록 A (Appendix A) 참조

4 별첨 부록 한국전 참전국 일람표 (Appendix B) 참조

5 별첨 부록 A (Appendix A) 참조



▲ 인천 상륙작전 지휘함 맥킬리호 선상에서 작전 지휘하는 맥아더 원수

UNC의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이로써 6·25 한국전은 미국을 주축으로한 유엔군 대 북한인민군, 나중에는 중국의용군(중공군)과의 대결로 변해 역사가들은 이를 대리전(Proxy War)이라고도 부른다. 역사적으로 태평양 전쟁(제2차 세계대전, 극동전선)에서 우방이었던 미국과 중국이 한국전에서 서로 총 뿌리를 겨누는 적대국으로 변했고, 이를 분기점으로 이후 양 대국이 항상 대치국면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미중관계의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물론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됨으로써 미중관계가 대치국면으로 변할 것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D. 인천상륙작전과 낙동강 방어전에서 일제 반격

a) 낙동강 방어선:

6월 25일 38선을 돌파한 북한 인민군은 6월 28일에는 서울을 점령, 7월 5일에는 오산, 7월 24일에는 대전을, 7월말에는 목포와 진주를, 8



월 초에는 김천과 포항을 함락시켜 적은 8월초부터 낙동강 방어선에서 UN군과 한국군의 필사적인 저항에 조우, 적은 부산으로 통하는 대구를 돌파하기 위하여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으나 UN군과 한국군은 여기에서 더 물러설 수는 없는 지경에 필사적으로 저항, 대구를 사수하는데 전력을 다하였다.

특히 대구의 방어전에서 국군 제1사단 (사단장 백선엽 준장)은 다부동(多富洞)에서의 치열한 공방전에서 반격전으로 전환, 적이 대구를 통한 부산 진입을 불가능하게하여 적은 낙동강 방어선에서 완전히 발이 묶여 전선은 완전히 교착상태에 빠져들어갔다.

b) 인천상륙작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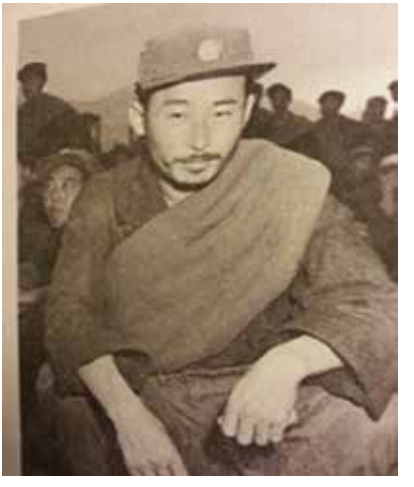
낙동강 방위선에서 UN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민군은 완전히 발이 묶였고 양측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상태에서 7월 15일부터 맥아더 장군은 북한군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함으로써 전세를 역전시킬 것을 구상, 인천에 지상군을 상륙시켜 적의 허를 찌르는 작전을 미 국방부에 건의하였다. 미 국방부(Pentagon)는 인천의 간만차가 심한 것을 우려, 군산으로 상륙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맥아더는 절대로 인천을 고집, 트루먼 대통령의 제가를 받아냈고, 낙동강 전선에서 총 반격전을 시작하는 것과 때를



▲ 전선으로 향하는 맥아더 원수 (앞줄)

같이 하여 작전을 개시했다.

미 제1해병사단과 미 제7사단으로 이루어진 미 제10군단 및 5,000명에 달하는 한국 해병대가 9월 15일 새벽 바다 밀물 때를 이용해 인천 월미도(月尾島)에 상륙(Code name: Operation Chromite), 다음날 인천을 탈환함으로써 9월 26일 서울에 진입하여 28일, 만 3개월 만에 다시 수도 서울을 되찾았다. 이로써 인민국은 불과 15일만에 13개 사단이 완전히 괴멸되었으며, 참모장 이학구(李學九) 총좌(한국군 대령에 해당)를 위시한 2만3,000여명의 적이 국군이나 UN군의 포로가 되었다.[6]



▲ 이학구 총좌의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의 모습

북한 인민군 패잔병들은 38선 북방까지 후퇴하는 동안 전 병력의 대부분이 괴멸되었으며 낙동강 전선에 발이 묶였던 적은 그 배후의 허를 찔려 일제히 38선 이북으로 패주하였다. 반면 UN군의 병력 손실은 인천 상륙작전에서의 손실까지 포함해 오직 18,000명에 불과하였고 UN군은 9월 29일에는 38

6 북한 인민군 13사단 참모장 이학구 총좌는 결사 항쟁하겠다는 상관인 사단장 홍용진 소장을 사살, 사단을 후퇴시키다가 포로가 되었으며 인민국 포로중에서 가장 높은 계급이였다. 후일 거제도 수용소에서 친공포로의 수괴로 활약, 북송후 하극상 반역죄로 처단되었다. (Memoir of Korean War POW written by R. I. Han(2011), P. 85.)



▲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국군 (1950. 9. 26)

선 근처까지 도달하여 일단 진격을 멈추었다.

이는 UN 안보리 결의서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의 방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UN의 궁극적 목적은 한반도의 남북통일이었기 때문에 38선 이북으로의 진격에 대한 논란이 심각했다. 북진통일을 항상 부르짖던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은 "이 기회에 북진해 통일을 이룩하지 못한다면 또 다시 우리가 이와 같은 끔찍한 전쟁을 치러야만 하니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이번 기회에 꼭 통일을 이뤄야 한다" 면서 강력히 북진통일(北進統一)을 주장하였다.

사실 당시의 모든 상황으로 볼 때 무력통일(武力統一) 외에는 통일의 길이 없다고 보여졌다.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한국군 참모총장 정일권(丁一權) 소장을 불러 한국 단독만이라도 북진하도록 강력히 지시했고, 정일권 소장은 군 지휘체제 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우선 8군 사령관인 워커 중장과 의논한 끝에 동해안 전선의 한국군으로 하여금 전술적인 상황에서 38선 북쪽 기사문리(基士門里) 부근의 감제고지를 점령하도록 하는데 합의하였다.[7] 이리하여 동해안 전선의 국군 제1군단 예하 2개 사단(수도사단 및 제3사단)은 10월 1일 38선을 돌파, 양양을 탈환한 후 북진을 계속하였다.

---

7 비록: 6.25 한국전쟁과 육군종합학교(육군종합학교 전우회 발행) P.203



▲ 평양 시내에 입성하는 국군 (1950. 10. 25)

한편 UN에서는 10월 7일 한국통일안이 가결되었으며[8] 이에 따라 서부 전선의 미 제1군단은 UN군의 북진한계선(北進限界線)인 정주-영원 - 함흥을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북진을 개시하여 10월 19일 국군 제1사단(사단장 백선엽)이 평양에 입성하였다.

이 무렵 10월 15일 트루먼 대통령과 UN 군 총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이 웨이크도에서 만난 자리에서 맥아더 사령관은 "11월 안으로 적을 격멸시킬 수 있을 것이고, 최소한 크리스마스까지는 이 전쟁이 종결되어 미 제10군단만 한국에 잔류시키고 미8군은 일본으로 복귀시킬 수 있을 것" 이라고 극히 낙관적인 보고를 하였다. 중공군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대통령의 우려에 대해서는 "그들이 초기에 개입했다면 그 성과는 결정적이었을 것이나 이제는 개입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다만 만주(滿洲)에 중공군 10만명 내지 12만 5천명이 압록강(鴨綠江) 연변에 배치되고 압록강을 도하한 중공군은 고작 5만 내지 6만명 정도가 될 것" 이라고 답변해 중공군의 대량개입은 문제시하지 않았다.[9]

맥아더 사령관은 대통령에게 보고한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전쟁을 종결하기 위하여 UN군의 북진작전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10월

8 비록: 6.25 한국전쟁과 육군종합학교(육군종합학교 전우회 발행) P.203

9 비록: 6.25 한국전쟁과 육군종합학교 P.228



▲ 서울 수복 직후 중앙청 앞에서 미사를 드리는 유엔군 (1950. 9. 28)

17일 미8군이 평양 부근까지 진격하였을 때 10월 2일부의 UN 군 사령부 작전명령 제 2호에 의한 최초의 북진한계선(北進限界線)인 정주-영원-함흥(定 州-寧遠-咸興)을 한만국경선(韓滿國境線)에서 48Km-64Km 이남 지점을 연결하는 선천-고인-평양-풍산-성진(宣川-古人-平壤-豊山-城津) 을 연결하는 선으로 북상 변경하였고, 10월 24일에는 이 한계선마저 아예 철폐하고 한국군과 UN군의 모든 가용한 전투력을 동원하여 한만국경선으로 진격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리하여 국군 제 2군단(제6, 제7 및 제8사단)이 10월 26일에는 박천-태천-운산-온정-희천(博川-泰川-雲山-溫井-熙川) 선까지 진출, 그리고 국군 제 6사단(사단장 金鐘五)의 제7연대의 선두부대가 한만국경선상의 초산(楚山)을 점령하고 꿈의 압록강변에 감격적인 태극기를 꽂았다. 그 역사적인 날이 10월 26일 오후 2시 15분이었다.

그러나 그 하루 전날인 25일 한국군 제 1사단이 운산(雲山) 북쪽에서 최초로 중공군(中共軍) 1명을 생포한데 이어 다음날에는 국군 제2군단 전면에서 숫자 미상의 중공군이 출현하여 치열한 교전을 치름으로써 중공군의 개입이 확실시되었다.

E. 중공군 개입

1950년 8월 20일 중국 주은래(Zhou Enlai) 총리는 UN에게 "한국은



▲ 압록강을 넘어 한국전쟁에서 참전하는 중공군

중국의 인접국으로서 중국의 안전을 위해 한국전에 개입할 수 있다"고[10] 경고 하였다.

1950년 10월 1일(이날은 중공이 장개석의 국부군을 축출한 1주년 기념 일이다) 소련 대사가 스탈린으로부터 중공 모택동과 주은래에게 중공군 5개 내지 6개 사단을 한국에 투입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하였다.[11] 그리고 북한 김일성은 모택동에게 간절한 중공군 파병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중공은 12월 2일부터 5일까지의 군사 및 정치 고위급 회담에서 임 표(Lin Biao)에게 한국 파병의 총사령관을 맡기도록 결정했으나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고사했고, 대신 팽덕회(Peng Dehuai)가 한국전 개입의 야전 총사령관을, 주은래가 한국전에 대한 총 책임자를 맡게 되었다.

10월 8일 모택동이 중국인민군의 동북방위군을 중국인민 지원병(PVA)으로 개칭, 한국전에 투입키로 하고 10월 10일 흑해에서 요양 중이던 스탈린을 만나 군사적인 원조를 요청, 군 장비와 포탄의 공급을 약속받았다.[12] 그리하여 10월 25일 한국국경을 넘었다.

---

10 Stokesbury (1990), P. 83.

11 Barnouin & Yu (2006), P. 144.

12 Halberstam (2007), P. 361.



▲ 인적사항이 적힌 목걸이를 걸고 새옷 지급을 기다리는 북한군 포로들

중공군(PVA)은 어둠에서 어둠(19:00-03:00시)으로 움직이는 야간행군과 각종 위장으로 UN공군의 정찰에 발견되지 않았고, 단동(丹東)에서 한만국경을 넘어 전방의 전선까지 286마일(460Km)을 19일만에 주파하였으니 그 속도를 미루어볼 때 훈련이 얼마나 잘 돼있었는지 실로 경이롭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산악을 넘을 때는 산을 우회하면서 하루 평균 18마일(29Km)을 행군하였다.

여기서 한국전에서 UN군의 승리를 역전시킨 중공군의 개입이 왜 이루어졌는가 하는 가장 중요한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중국 국부군을 축출한 지 1년도 채 못되어 아직 극도의 피폐에서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택동(毛澤東)이 한국전에 개입한 이유는 크게 두가지였다.

첫째, 북한의 공산세력이 무너져 중국 국경까지 미국의 세력이 미치는 것을 중공으로서는 절대 좌시할 수 없었다.(완충지의 필요성)

둘째, 역사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마침 1949년의 마지막 국공전(國共戰)에서 장개석(蔣介石) 국부군을 퇴폐

시켰을 때 발생한 약 150만명의 국부군 포로 처리 문제에 골치를 앓고 있었는데 한국전에 이 포로들을 투입함으로써 군 내부의 불안감을 일소할 수 있고, 우방(소련과 북한)에 대한 의리를 지킬 수도 있고, 또 미국의 세력을 북한에서 구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일석삼조(一石三助)를 꾀한 것이었다.

이 국부군 포로 투입은 나중에 포로교환 때 중공 포로들을 중국 본토로 송환하려하자 국부군 출신 중공 포로들이 결사반대 함으로써 골치 아픈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결국 (장개석이 있는) "대만도 중국땅이 아니냐"는 UN측의 주장에 굴복하여 대만행이 성사되었다. 이로써 한국전에 투입된 중공군의 많은 병사가 국부군 출신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a) 중공군 제1차 공세

압록강을 넘어온 중공군 제13군 그룹은 10월 19일에 제1차 동계공세를 개시, 10월 25일에 중공군 제40군이 한국군 제2군단의 6사단을, 중공군 39군이 한국군 제1사단을 기습 공격 하였다. 이는 국군과 유엔군이 청천강(淸川江)을 도강한지 이틀만이며 그중 선봉부대인 국군 제 6연대는 국경선 남방 60Km인 회목동(檜木洞)에서 고장(古場)으로 북진을 계속하고 있던 날 이기도 했다. 그리고 10월 24일은 맥아더 라인(선천-거인-평양-풍산-성진선)이 철폐된 날이었다.

10월 25일 중공군 제2군이 한국군 2군단의 제6사단을 공격했을 때는 이미 적의 일부 병력은 청천강 북쪽의 운산과 온정리까지 진출, 국군 제6사단과 제1사단의 진로를 차단했고, 정유령산맥을 넘어 초산(楚山)을 향하던 국군 6사단의 제7연대의 퇴로를 차단하였다. 그 당시 한번도 중공군과 조우한 적이 없었던 한국군은 꽹가리를 치며 사방에서 포위망을 좁혀오는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나 UN군 사령부는 그때만 하여도 "한만국경에 배치되어있는 중공군 경비대가 북한군을 지원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오판, 미 제1기병 사단을 급히 운산 지구로 이동시켜 국군 제1사단을 초월하여 공격하게 하는 한편 미 제1군단으로 하여금 신의주(新義州)-수풍(水豊)간의



▲ 1950년 10월 25일 – 11월 5일 전개된 일차공세군은 제38군, 39군 그리고 40군이 일차공세를 해왔고 각 군은 3만명의 병력으로 되어있었다. 거의 보병으로 짜여져 있으며 경험이 풍부한 군으로 총기 다루는 기술과 군순찰 등 베테랑급이었다.

국경선을 목표로 진격을 계속시켰다. 그리고 동부의 제1군단과 미 제10군단은 중공군과의 접전이 없는 가운데 국경선을 향한 진격을 계속시켰다.[13] 그러나 미 제1기병사단이 국군 제1사단을 초월하는 작전이 실패함으로써 운산 온정리 일대에서 작전 중이던 UN군과 국군마저 철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미 제8군은 중공군의 돌연한 출현으로 전선의 균형이 일시에 무너졌고, 정거동으로 진출한 부대의 퇴로가 차단될 위기에 직면하자 11월 1일을 기하여 이 부대들을 약 90Km 후퇴시켜 청천강 남안에 방어선을 형성하고 전세 만회를 위한 작전준비에 착수토록 하였다.

그러나 청천강 연변까지 남하한 중공군은 11월 5일-11월 7일경 산쪽으로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동부전선에서는 국군 제3사단 제26

13 實錄: 6.25전쟁과 육군종합학교, P.232



▲ 장진호 전투에서 중공군의 승리 환호.

연대가 수동의 작은 계곡에서 중공군과 작전을 치른 뒤에 후퇴하였다. 그 얼마 뒤에 국군 제1군단과 미 제10군단은 장진호(長津湖)-풍산(豊山)-성진선(城津線)에서 일단 진격을 멈추고 다음 명령을 기다리던 중 중공군의 전차(戰車)가 출현하게 됨을 확인하였다.

중공군의 제1차 동계 공세에서의 중요한 전투는 국군 제6사단 제2 및 19연대와 국군 제7사단 제10연대의 온정리 전투(10월 25-28일), 국군 제1사단과 미 제1기병사단에 의한 운산 전투(10월 25일-28일), 영 연방군의 군우리(軍遇里) 동측방의 비호산(飛虎山) 전투(11월2일-4일), 동부 미 제10군단의 미 제7사단 예하 20 및 17연대의 혜산진(惠山鎭) 탈환 전투(11월 21일) 등이다.

b) 중공군 제2차 공격의 충격

11월 25일 서부전선에서 중공군 제13군 그룹은 한국 제2군단을 청천강 전투에서 괴멸시키고 그 우측의 미 제2 보병사단까지 격퇴시켰다. 이로써 미 육군의 전사상 가장 긴 후퇴가 시작 되었는데, 이를 가능케 한 것은 터키 여단의 후미보호 전투로, 아주 용감하고 희생적인 혈투로써 이틀간(11월 27일-29일) 적의 진격을 저지시킨 것이 이 긴 후퇴를 가능하게 하였다.



▲ 흥남부두로 몰리는 피란민들 (1950. 12. 19)

*****장진호의 포위망 탈출:**

동부전선에서는 11월 27일 미 제7 보병사단 예하의 연대병력(3,000명)과 미 제1해병사단(12,000-15,000명)이 중공군 제9군 그룹에 의한 3일간의 포위공격으로 장진호에서 15,000명의 전사자를 남기고 Chosin Few(長津湖)를 빠져나왔다. 이 장진호 전투를 Chosin Few라고 부르며 미국 전사 역사상 한 지역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전투로 기록돼있다. Chosin Few는 일본인들이 장진(長津)을 일본 발음으로 '죠신' (Chosin)으로 발음하여 지도상에 '죠신'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이며 Few는 영어의 '적다'는 뜻으로 장진호 포위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얼마 안된다는 뜻으로 Chosin Few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로써 미 해병 1사단은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고 잔존 병력은 간신히 흥남으로 빠져나와 선박을 타고 남쪽으로 철수하였다. 그리하여 11월 30일까지 중공군 제13군 그룹은 미 제8군을 축출, 12월 중순에는 38선 이남까지 후퇴시켰다. 한편 동북전선에서는 12월 11일까지 미 10군단이



▲ 철수하는 유엔군 수송선에 오르기 위해 흥남 부두로 몰려든 피란민들 (1950. 12. 19)

중공군 9군 그룹의 진격을 저지하면서 흥남 방위교도부 설치에 성공, 그 유명한 흥남 철수작전이 시작되었다.

[흥남 철수 작전]

미 제9군단, 제10군단의 병력이 함흥을 거쳐 흥남으로 집결, 선박으로 남쪽으로 철수하게 되는데 이 철수작전에서 105,000명의 병사와 98,000명의 일반 피난민과 17,500대의 차량, 350,000톤의 군수품을 193척의 선박으로 부산으로 철수시켰다. 이때 북에서 후퇴해 내려온 한국군은 흥남 부두의 혼란과 또 피난민들의 철수를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기 위하여 김백일(金白一) 장군이 한국군 전군에게 도보로 남하하도록 명



▲ 메러디스 빅토리호 선상의 탈북피난민들

령, 이로 인하여 흥남에서 많은 민간인 피난민들이 배를 탈 수 있어 보다 더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었다.

이 철수작전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마지막에 떠난 메러디스 빅토리호(S S Meredith Victory)의 영웅적인 피난민 수송이다. 메러디스 빅토리호는 1945년에 건조된 7,600톤의 화물선이며 정원은 60명으로서 선원 47명에 13명의 승객이 더 탈 수 있는 배였다. 그러나 당시 흥남부두에는 아직 철수를 다 못한 군인들과 군사물자와 차량 등으로 붐비고 있는 가운데 북에서 함흥을 통하여 밀려내려온 피난민들로 부두는 발 디딜 틈도 없이 혼잡 하였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남은 배는 메러디스 빅토리호 밖에 없는데 군인과 군사물자를 실으면 민간인을 한 사람도 더 태울 수 없었다. 그러나 부두에 운집한 피난민들이 울부짖고 애걸하는 모습은 차마 그대로 적중에 버리고 가기에 너무나 참혹한 광경이었다. 그러나 군인을 먼저 구출해야하는 10군단장 아몬드 중장의 입장에서는 이 피난민들을 그대로 버리고 가는 수밖에는 도리가 없었다.

그때 10군단의 아몬드 장군(Lt. Gen. Edward M. Almond)의 민사고문이었던 의사 현봉학(玄鳳鶴 博士)씨가 아몬드 장군에게 "우리의 군사 목적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것인데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로 가겠다는 이 피난민들을 우리가 어찌 적에게 넘겨주고 갈 수 있겠느냐" 며 피난민들을 같이 태워주기를 애원하였다.

또 한편으로 한국군 수도사단의 민사참모(G-5) 유원식 대령(柳原植 大領) 또한 아몬드와 그의 참모들에게 부두에 운집해있는 피난민들을 어떻게라도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애걸복걸하여 결국 실었던 모든 군사물자를 다시 내리고 피난민들을 태우기로 했다. 그러나 7,600톤의 화물선에 그 많은 피난민을 다 태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선장 레너드 P. 라루[14] (Leonard P. LaRue 1914-2001)는 배가 가다 침몰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 태우기로 결심, 피난민들에게 짐을 다 버리도록 지시하고 14,000명의 피난민을 태워 28시간을 천천히 항해해 24일 부산항에 무사히 도착했다. 하지만 부산항은 이미 피난민들로 가득 찼다는 이유로 입항을 거절해 하는 수 없이 50마일을 더 항해해서 크리스마스인 25일 거제도의 장승포 항에 입항하였다.

이 배는 미 의회에서 갤란트상(Gallant Award)을 받은 몇 안되는 배 중의 하나이며 또 기네스북에 역사상 작은 배로서 가장 많은 사람을 태운 배로 기록되어 있으며 지금 미국 롱비치(Long Beach) 항에 그와 똑같은 모형이 전시되어 있다.

(**원래의 메러디스 빅토리호는 아쉽게도 1993년 고철로 분해돼 중국에 팔렸으며 일등항해사였던 로버트 래니씨는 수년전에 LA 한인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6·25 기념일에 나와 인사했었다.)

이러한 와중에서 12월 23일(1950) 후퇴작전을 지휘하던 미8군 사령관 워 커 장군(General Walton Walker)이 차 전복으로 사망, 전군의 사기

---

14 레오나드 P. 라루(Leonard P. LaRue) 선장은 필라델피아에서 출생, 바다에서 22년간을 보냈으며 1954년에 은퇴 뉴저지주 뉴턴시에 있는 베네딕토회의 성 바오로 수도원 (St. Paul's Abbey in Newton)에 들어가 '마리나스' (Marinius)라는 이름의 수사로 2001년 10월 87세로 숨질때 까지 평생을 봉헌했다. 당시 1등 항해사였던 로버트 러나씨와 한국의 안재철씨가 메러디스 빅토리호를 "세계에서 작은 배에 가장 많은 사람을 실은 배로" 기네스북에 올렸다.



▲ 전선을 시찰하는 중공군사령관 펑더화이.

가 땅에 떨어지게 됐다. 12월 26일 워커 장군 후임으로 도착한 리지웨이 중장 (General Matthew Ridgway)은 전군의 사기 진작과 군의 재정비가 가장 시급한 것을 느꼈다.

c) 중공군 제3차 공세

1950년의 마지막인 날(12월 31일)에 절대 다수병력의 중공군이 꽹가리, 피리 등을 불며 물결처럼 몰려오는 인해전술로 전 UN군이 붕괴상태에 빠져 1951년 1월 4일에는 또 다시 서울이 적의 손에 함락되었고 전군이 38선 이남까지 후퇴하게 되었다. 이것이 중공군의 제3차 공세였다.

중공군 제3차 공세에 완전히 밀리게 되자 맥아더 장군은 미국의 핵 폭탄을 적의 심장부에 투하, 그 방사선으로 인해 적이 더 이상 중공군의 군수품 수송과 병력 이동을 못하도록 하는 작전을 고려하였으나 그것은 제3차 세계대전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 하여 허용되지 않았다. ***(소련은 1949년에 핵 폭탄실험을 했으며 미국은 1950년 소련이 상당한 원폭을 가진 것으로 오판하였다)

한편 신임 8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은 우선 전군의 사기진양에 전력을



▲ 금화지구 전투에서 미군 전차를 기습 공격하는 중공군.

다하면서 수원과 원주, 삼척까지 후퇴했던 병력을 다시 재정비, 적의 연장된 긴 보급로를 폭격하여 적의 식량수송을 비롯하여 탄약 등 가장 급한 군수품의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적이 서울 이북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어 다시 서울 부근의 원주까지 진격하였다.

d) 중공군 제4차 공세

2월(51년) 중순경 중공군의 반격은 홍천(洪川) 탈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미 보병 2사단 제3연대와 불란서 대대병력 및 한국군 일부를 포함한 총 5,600명의 병력으로 중공군의 포위군 25,000명을 격퇴시킴으로써 함흥 후퇴 이후 처음으로 설욕전에서 명예를 회복하였다. 실로 1대 5의 병력으로 싸워 이긴 "한국전의 게티스버그 전투" (Gettysburg Battle of Korean War)였다. 이 전투에서 완전히 사기충천한 미8군은 전 전선에 걸쳐 월등히 우월한 화력으로 적 병력의 살상에 집중, 여세를 몰아 3월 7일 다시 서울을 탈환하였다. 이것이 4번째의 수도 탈환이며 이때는 150만이던 서울 인구가 20만명으로 줄어있었다.

이 무렵 중공 모택동 주석은 3월 1일자로 소련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에

서 중공군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공군력의 절대 부족으로 보급로 엄호를 할 수 없어 병기와 식량 부족으로 더 이상 전투를 수행하기 힘드니 기필코 공군력 증강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스탈린은 2개 비행사단과 3개 대공사단 그리고 600대의 차량을 공급하기로 동의하였다.

4월말경에 중공군 총사령관 팽득회가 자기 부사령관을 주은래 수상에게 보내 중공군의 위협은 적보다도 "먹을 것이 전혀 없고, 실탄이 바닥을 치고 있으며 수송 차량이 없어 부상자를 후송할 길이 없다"고 보고함으로써 그의 지원을 약속하였으나 그 약속은 완전히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열세의 공군력을 보강하기위하여 1951년 9월부터 중공 공군이 한국전에 참여키로 하였다.

한편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 장군을 4월 11일자로 해임시켰으며 같은 날짜로 한국전에서 패배일로의 유엔군을 재정비, 신속하게 적의 공격을 차단한 리지웨이 장군(General Mathew B. Ridgway)을 그 후임으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미 8군 사령관으로는 밴 플리트장군 (General James Van Fleet)이 임명되었다.

참고로 맥아더 장군의 해임 이유들은: 1) 38선을 넘어 진격해도 중공이 참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여 많은 군의 사상자를 낸 것, 2) 원자탄 사용이 자기 권한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 3) 맥아더는 군사적 완전 승리만이 유일한 명예스러운 결과라고 믿는 반면 트루먼 대통령은 아시아의 지상전에서 완전승리는 힘들다는 비관론과 따라서 적당한 기회에 휴전하여 유엔군의 철수로 끝내는 것이 이롭다는 생각의 차이, 또한 1950년 당시 소련의 공산세력이 동구권을 위시하여 전 유럽으로 번져나감으로써 1949년 설립한 NATO군의 보강이 절실히 필요해짐에 따라 더 이상 한국 전에 미 지상군을 묶어둘 수 없었던 것, 4) 군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의 명령 불복종과 또한 전시 중 최고 사령관으로서 전쟁터인 한국에 한번도 숙박하지 않고 안전한 일본에서만 작전을 지휘했다는 것 등등이다.[15]

---

15 Stokesbury(1990), pp. 123–127; Stein (1994), p. 69; Halberstam(2007), p. 600; Stein (1994), p. 79; Halberstam (2007), P. 498.



▲ 제 5차 공세때 공격하는 중공군.

맥아더 해임 직후 밴 플리트 장군 취임 후에도 적의 공세는 계속되었지만 늘 UN군에 의해 격퇴되었으며 공군과의 합동작전에서 개성과 서울 사이에 중공군을 가두어 적을 섬멸하면서 북상, 지금의 휴전선인 38선 이북의 소위 캔사스 전선(Kansas Line)까지 도달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은 4월 중순경 전선을 정비한 후 5월에 접어들면서 또 다시 총공세를 시작하였으니 이를 제5차 춘계공세라고 부른다.

e) 중공군 제5차 춘계공세와 좌절

중공군은 4월에 이르자 3개 야전군 총 270,000명의 병력을 동원해 미 제1군을 임진강과 가평에서 공격하기 시작했고, 5월에는 UN군이 점유한 캔사스 선을 공격 점령했다. 그러나 5월말에 다시 UN군이 반격하여 캔사스 선을 확보함으로써 전선은 교착화되기 시작했다.

이후의 전투에서는 점령지역의 변화는 별로 없이 대체로 대대병력 정도의 조우전이 전개되었고, 주로 38선 이북에 대한 폭격만 강화되어 전선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 교착상태는 결국 공산군이 한반도 전체를 완전 적화한다는 꿈을 버리게 했고, 또한 UN이 바라는 남북간의 평화적인 통

일의 길은 멀어만 가는 것 같았다.

이러한 가운데 1951년 6월 23일 소련 주 유엔대사 제이콥 말리크(Jacob Malik) 외무차관은 UN방송국 '평화의 대가' 시간을 이용, 휴전협상을 암시했고 미국 또한 한국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유 우방국가들을 대표하여 마침내 소련의 협상제의를 받아들였다.[16]

미국이 소련의 협상제의를 받아들인 이면에는 여러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한반도의 지형상 군사적으로 완전승리를 거두려면 더 많은 병력 증강이 필요한데, 당시 2차대전의 후유증으로 전세계가 경제적으로 피폐한 점을 틈타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세력이 동구유럽을 위시하여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어가던 시기인지라 특히 유럽을 중시하는 미국으로서는 더 많은 병력을 극동에 묶어둘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또한 참전한 자유민주국가들이 한국에 더 병력을 증파해주는 것도 어려운 문제였다.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을 이룩하려면 한반도에서 중국의 세력을 일소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국경을 넘어 중국 본토의 심장부를 폭격해 대타격을 가해야하는 일이었다.



▲ 중공군 포로들이 쉬고 있는 모습.

그러나 이는 소련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잘못하면 또 다시 세계대전으로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더 이상의 희생과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북진하는 것이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 현 전선에서 더 이상 공산세력이 남하하지 않도록 견고한 방위태세로 전환한 것이다.

16 US Army in Korean War Written by Dr. Walter G. Hermes (1992), P. 15.



▲ 1953년 춘계공세를 준비하는 중공군.

따라서 중공의 제5차 춘계공세를 격파한 시점에서 북진보다는 방위태세로서 앞으로의 남침을 막는데 가장 유리한 지형 지점을 점유하는 일에 주력함으로써 상호간 치열한 국지전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것은 휴전회담 중에도 휴전이 성립될 때까지는 전투행위가 계속된다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

한편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정세로서는 남북통일은 무력에 의한 방법외에는 딴 방법이 없다고 판단, 이왕 공산측이 남한을 침공한 이 기회에 어떻게든 북진하여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면 또 다시 새삼 피를 흘려야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북진하여 통일을 이룩해야겠다고 결정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참모총장이었던 정일권(丁一權) 장군에게 한국군 만이라도 북진하도록 지시하였지만 모든 군사 지휘권이 미 8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에 속한 탓에 우리 국군만으로의 행동은 불가능 하였다. 또한 단독 진격한다 해도 미국의 군사적 지원 없이는 전혀 승산이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절대 휴전반대운동은 일방적인 반공포로석방(1953년 6월) 등으로 사사건건 미국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미국정부로서

는 이 대통령을 미국의 가장 큰 골칫거리의 하나로 여겨 한때는 이 대통령의 축출까지도 고려한 적이 있었다.

이러한 이 박사의 격렬한 휴전반대는 휴전 후 미국과의 한미동맹 체결, 한국 재건을 위한 막대한 경제원조를 받아내는데 절대적인 무기가 되었다.

| 제 2 장 |

정전협상

정전협상

전술한 바와 같이 소련측에 의한 휴전협상 제의는 미국으로서도 바라던 바였으며 UN 또한 이를 반겼다. 우선 휴전협상에 참가할 양측 대표단의 명단과 협상에서 다룰 의제선정 문제 등을 미리 연락장교단을 통하여 조절하여 제1차 휴전협상 본회의를 우선 개성(開城)에서 열기로 합의하였다.[17]

A) 의정 설정문제:

휴전협상에 대한 중공측의 태도는 우선 1) UNC(유엔군)의 한반도로부터 완전 철수 2) 대만의 중국본토 반환 3) 중공의 UN의석 대치 등 미국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전제조건들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오직 인내와 계속적인 군사적 압력만이 분명한 회답으로 생각되었으며 중공의 제5차 춘계공세(5월 공세)의 실패는 더 이상 중공군의 무력공세로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6월 27일 소련 외무차관 안드레이 그로미코(Andrei Gromyko)가 주 모스코바의 미 대사 알렌 커크(Allen G. Kirk)에게 "정전회담은 현지 야전사령관의 협상에 맡기고 회담은 순 군사적인면에 한하며 정치적 문제와 영토적인 문제는 이에 포함될 수 없다"는 요지를 통지해왔다.

이에 대해 6월 30일 리지웨이 UN군 사령관은 라디오를 통하여 "회담장소는 원산 앞바다에 정박 중인 덴마크 병원선이 적당하다고 사료되며

17 본회장을 후에 (1951년 10월 24일) 板門店으로 옮겼다.



▲ 북측과 남측 휴전 협상 실무자들의 모습



▲ 처음 휴전협상장으로 지정된 개성 내봉장(來鳳莊) *** 뒤에 판문점으로 바뀌었음.

회담 날짜를 설정하자"라고 방송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미 국무부는 리지웨이(Gen. Ridgway) 사령관에게 정전협상에 대한 미국의 포괄적인 지침을 훈령하였다. 이것은 정전협정의 확보와 재발 방지책,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협상 금지, 특히 대만 반환에 대한 언급 금지, UN에 장개석 정부의 대표를 중공의 대표로 대체하는 문제 언급 금지 등 순수한 군사적 문제 이외는 일체 토의하지 말것과, 비무장지대는 현 전투위치에서 남북 20마일로 설정할 것 등으로 요약된다.

여기에 대해 공산측(특히 중공측)은 정전과 동시에 한반도에서 외국군대의 완전 철수, 대만의 중국 본토에의 반환, UN에 장개석 정부 대신 중공의 의석 대체, 휴전선 설정을 원래의 북위 38선으로 그리고 비무장지대를 남과 북 각각 2km로 할 것 등을 주장했다.

양쪽의 의견 접근은 어려워 보였으나 UN군측의 강력한 공군력과 해군력을 앞세운 군사적 압박에 결국 공산측이 요구한 a) 외국군대 철수문제 b) 대만문제 c) 중공의 안보리 의석 대체 문제 등은 제외, 순수한 군사적인 문제만을 토의한다는 원칙에 의해 의제에서 배제됐고 다음과 같은 의제 채택으로 겨우 합의하였다.

1. 의제 설정
2. 정전 경계선(Demarcation Line) 설정과 비무장지대(DMZ) 설정



▲ 유엔군측 휴전대표로 나온 터너 조이 제독(중앙) (1951. 8. 13)

3. 정전회담 합의에 대한 실천과 조율 문제

4. 포로석방에 대한 토의

위의 의제 중에서 가장 시간을 끈 것이 정전 경계선 설정과 포로석방 문제였으며 특히 포로석방 문제는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한국전쟁이 3년 1개월 지속된 것은 이 포로 문제에 근 2년 이상이나 합의를 이루지 못한 탓이었다.

[휴전협상 대표단 명단]

a) UN군측 대표단

왼쪽부터 호데스 장군(General Henry Hodes), 크레이기 장군(General Craigie), 조이 제독(Admiral Turner Joy, 수석대표), 한국측의 대표인 백선엽 장군, 버크 제독(Admiral Arleigh Burke)

b)공산측 대표단

왼쪽부터 중공군의 셰팡(Hsieh Fang) 소장, 덩화(Teng Hua) 중장, 북한군 대표 남일(南日) 중장(수석대표), 이상조(李相朝) 소장, 장평산(張平山) 소장



▲ 공산군측 휴전회담 대표로 가운데가 북측 수석 남일 대표 (1951. 7. 16)

B) 정전선 설정문제

이 문제는 뒤의 포로문제와 같이 가장 치열한 공방이 벌어져 서로가 자기 주장을 양보하려 하지 않았다. 공산측은 휴전(정전) 경계선은 당연히 원래의 38선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했고, UN군측은 현재의 전투 점촉선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조금도 굽히지 않았다.

UN군측의 강력한 주장의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공산측의 남침을 방위하는데 용이한 현 지점을 절대 양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UN측이 주장한 휴전(정전)선은 소위 캔사스 전선(Kansas Line)과 와이오밍 전선(*Wyoming Line)[18]으로, 특히 산악전투에 취약했던 미군으로서는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확보한 북상(38선 이북)의 금화(金化)-철원(鐵原)-평강(平康)으로 연결되는 소위 철의 삼각지(***Iron Triangle)를 절대 양보할 수 없었다.

철의 삼각지는 험한 산악지대로서 적의 남침을 막는데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유엔군은 피의 능선, 단장의 능선, 판치볼 등 치열한 전투를 거쳐 많은 희생을 치르고 이 지대를 확보하였다. 그만큼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대여서 절대 양보할 수 없었던 것이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서울에서 멀지않은 개성이 새로 설치되는 휴전(정전)선의 이북 쪽에 속하게 되는 문제였다. 이것은 심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불리한 점이었다. 이에 대해 UN군측이 중부전선의 일부를 양보하더라도 개성을 휴전선 남쪽으로 하려 협상하였으나 공산측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대립된 양쪽 주장으로 협상이 결렬 단계까지 이르자 UN측은 보다 더 강력한 압력을 가하기 위하여 전 공군력과 해군력을 동원하여 이북

---

18 밴프리트(Gen. Van Fleet)장군이 설정한 방어선으로서 a) 캔서스 전선 (Kansas Line)은 서울 북방 20 마일의 임진강(臨津江) 하구에서 동북쪽으로 임진강 상류를 지나 고량포(高良浦) 까지로 이를 서부전선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와이오밍 전선 (Wyoming Line)은 고량포에서 금화(金化)-철원(鐵原) - 평강(平康)을 잇는 소위 말하는 철의 삼각지(Iron Triangle Area) 전선으로 소위 중동부 전선을 말한다.



▲ 한국전에 참전하기 위해 영국군들이 영국 사우삼톤항구에서 승선하고 있다(Paphotos)

의 중요 군사시설과 군비 보급로, 그리고 수도 평양을 포함한 중요한 군사 및 산업 시설 등을 맹폭격함으로써 UN군이 이 문제는 절대 양보 불가하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결국 당시 점령한 현 전선으로 하되 휴전 직전에 이 점령 지점에서 남북이 각각 2Km씩 후퇴, 동서로 중간 4Km에 비무장지대(DMZ)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C) 포로 송환문제

포로 송환문제는 그 시작부터 복잡한 많은 문제들이 얽혀 있었다. 첫째는 포로의 정의 자체부터 문제가 되었고, 송환 원칙에서 완전히 의견대립을 보여 포로교환을 1 대 1에서 전원 대 전원(all-for-all) 원칙으로 바뀌는 듯하다가 UN군의 '자발적 송환' (Voluntary Repatriation)[19] 주장 등으로 포로 처리 문제는 난항을 거듭하였다.

---

19 UN군 (미군)측이 자발적 송환 (Voluntary Repatriation)을 고집한 이유는 당시 UN군에 잡혀 있던 북한 포로들의 대부분이 남한 출신이었고 또 중공군포로의 대부분이 장개석(張介石) 휘하의 전 국부군(國府軍)으로서 이들은 중국본토의 공산측에 돌아가기를 결사 반대하였다. 남한출신의 북송반대 포로들을 반공포로, 북송을 원하는 포로들을 친공포로로 불렀으며 포로수용소내에서 이 두파간의 치열한 반목은 상호 많은 사상자를 냈었고 만일 포로송환시 이들 친공포로들과 반공포로들을 다 같이 돌려보낼 경우, 반공포로들이 돌아가 심한 보복적 처벌을 받을것을 염려하여 인도적인면에서 Voluntary Repatriation을 고집한것이 가장 큰 원인이며 다음은 송환된 포로가 다시 적국의 병력증강에 이어질 우려에서 온 것이었다.

[각국의 포로처리 문제]

우선 미국독립전쟁(1775-1783)의 파리조약에서 포로문제에 대해서는 양쪽이 서로 "양쪽의 포로들은 자유의 몸이다"라고만 되어있어 많은 포로들이 종전 후 자국으로 돌아가는 대신 미 대륙에 그대로 남아 정착하게 되었다. 따라서 포로들의 송환문제는 별도로 논의되지도 않았다.

그 뒤 소련은 2차대전이 끝나자 유럽과 극동에서 많은 포로들을 억류하여 그들을 전쟁파괴 복구작업과 시베리아 개척사업에 투입하며 많은 포로들을 오랫동안 혹사하였다.

이러한 포로들의 여러가지 취급 방법 등에 대해 1929년에 만들어져 1949년 개정된 제네바 협정(Geneva Convention) 서문 118항은 "포로들은 적대행위가 끝난 조속한 시일내에 본국으로 송환되어야한다"라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적지 않았다. 포로들 중에 본국 송환을 거부하거나 꺼리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본국 송환후 또 다시 군에 재입대되는 것을 꺼려 송환을 반대하는 자, 전시 중 적에게 협력 또는 부화 혹은 내통한 혐의 또는 전투력이 있었는데도 자진 투항하여 포로가 된 전력등으로 본국에서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송환을 기피하는 자, 또는 전투 중 적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약간의 훈련을 받은 후 적군에 강제적으로 편입되어 최전선에서 전투하다 또 다시 아군에게 포로가 되었는데 포로송환으로 송환되면 다시는 고향(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 등으로, 이러한 자들은 송환되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였다.

이리하여 개인적인 문제와 원칙적인 문제, 인도적인 문제와 법률적인 문제,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획일적인 강제송환 문제 등 많은 인도적 문제와 철학적인 문제 등이 내포되어 더 복잡하였다. 거기에다 포로송환이 적의 병력 증강으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 가능한 적게 포로들을 송환하려는 양측의 속셈까지 깔려있어 문제는 쉽게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실제로 공산측은 많은 국군포로들을 재교육시켜 자국군에 강제 입대시키고 또다시 최전방에 실전 배치하였다) 제네바협정의 118항에 명시되어있는 포로 전원의 즉시 송환문제는 실현성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다.



▲ 따뜻한 봄볕을 즐기는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중공군 포로 (1953. 3. 20)

여기에 포로의 숫자와 포로의 정의 문제 등 여러가지가 뒤엉켜 포로 송환문제는 더욱 더 복잡한 양상을 띠었다.

a) 포로의 정의(定義) 문제:

포로들 중에는 많은 민간인이 포함되어있었고 이들이 군과 관계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했다. 또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을 의용군(義勇軍)이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끌고가 인민군에 입대시켰는데 이 자들이 UN군의 포로가 되었으며 이들을 정규군과 같이 인정하여 일반 전쟁포로로 분류해야하는지도 문제였다.

둘째로 초전에서 많은 한국군이 포로가 되었는데 이들 대부분이 강제로 인민정규군에 편입, 최전방에 배치돼 전투 중 또 다시 UN군의 포로가



▲ 차도를 따라 남으로 피란 중인 아낙네 (1950. 7.)

되면서 법적으로는 국적이 대한민국 국민인데 어느 쪽의 포로로 정의하느냐 등 법적인 문제까지 겹쳐 매우 복잡하였다.

b) 포로 숫자 문제(Roster):

포로의 숫자는 양쪽에서 회담 때마다 제출한 서류상의 숫자가 항상 일치하지 않았다. 더욱이 공산측이 제출한 51년 12월 18일자의 숫자에는 한국군 포로 7,142명, 한국군을 제외한 UN군 4,417명 도합 11,559명[20]으로 되어있었다. 이는 UN군측의 전 실종자(MIA) 188,000명[21](Hermes는 UN군 전체 실종자가 아니고 단지 국군 88,000명, 미군 11,500명만 언급)의 10분의 1도 안되는 숫자였고, 특히 UN군측이 52년 1월 28일자에 제출한 UN군측 보유 공산군 포로 132,080명의 10분의 1 밖에 되지 않는 숫자였다. 참고로 UN군측이 공산측에 제시한 보유 포로의 내용은 전원 132,080명[22], 이 중 20,720명은 중공군, 121,360명은 북한인민군으로 분류된 숫자였다. ***(필자의 전투 경험에 의하면 전사자, 부상자를 제외한 실종자수의 대부분이 포로가된 자들이었다).

---

20 Hermes (1992), P.141
21 Hermes (1992), P.141
22 Hermes (1992), P.141

공산측이 제출한 숫자는 인민군이 남침하여 서울을 점령하고 20일 뒤 평양 방송에서 "서울지구 전투에서 65,000 여명의 괴뢰군을 생포하였다"라는 숫자보다도 훨씬 적은 숫자라 UN군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 하였다.

그러나 이 말도 안되는 숫자에 대해 인민군측 이상조(李相朝) 부수석은 "포로들 중 대부분이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전원 다 풀어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오히려 UN군에 대해 그 제시한 숫자 중에 44,259명과 또 1,459명의 명단이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UN군 대표단의 루트벤 리비 제독(Rear Admiral R.E. Libby, USN)은 이 빠진 숫자들은 37,000명이 전부 남한에 살던 민간인이었으며 또 다른 1,600명이 민간인으로 판명되어 석방했다고 응수했다.

그러나 국군포로들 중 많은 수를 재교육 후에 북한 인민군에 편입시켜 최전선에 배치했고 또 그들이 다시 UN군측의 포로[23]가 되어 거제도와 부산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어있는 사실로 보아 UN측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이들 인민군에 강제 편입시킨 국군포로는 포로숫자에 넣지 않은 것이 확실하였다.

이처럼 포로문제로 옥신각신 시간을 보내는 휴전협상이 침체상태에 빠지자 UN군측은 전 공군력을 동원, 북한의 군사시설 및 보급로를 연일 맹타 차단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더욱 더 군사적 압력을 가하였다.

c) 포로의 송환 원칙(송환 대상자)

이러한 회담의 교착 상태에서 우선 중,부상병(重負傷兵)의 교환이라도 먼저 하기로 합의, 1952년 4월 26일 공산측에서 684명, UN군측에서 6,670명의 부상자를 송환함으로써 처음으로 포로교환이 이루어졌다.[24]

---

23 Dr. Hermes, "The US Army in Korean War" P.136 & Archives, Armistice Talks in Korea (1951–1953)(Based on Documents from the Russian Foreign Policy Archives) Translated in English P.85

24 Archives, Armistice Talks in Korea (1951–1953) (Based on Documents from the Russian Foreign Policy Archives) Translated in English P.85



▲ 군우리(현재 개천) 지구에서 반격을 전개하는 중공군 (1950. 11.)

포로의 송환은 제네바협정서 118항(1949, Geneva Convention Article 118)에 상호 적대행위가 끝나는 즉시 지체 없이 전원을 원래의 소속국으로 송환 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음은 이미 전술하였다.

그러나 UN군측은 공산 포로들 중에 중공군외의 북한 인민군 중에는 일부 포로들이 남한 출신이고 또 한국 국군들이었으며 이들이 공산측의 포로가 되자 강제적으로 인민군으로 편입된 자들이었음을[25] 알게 되었다.

포로송환 문제로 휴전협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남한출신 포로들은 당연히 북한으로의 송환을 결사반대 하게되어, 포로수용소 내에서 북송을

25 Dr. Hermes "US Army in Korean War" P.142

원하는 북한 출신의 인민군 포로들과 북송을 반대하는 남한 출신의 포로들간에 치열한 암투가 벌어져 서로가 죽이고 죽는 유혈사태가 연일 벌어졌다.

전자의 북한 송환 거부자를 '반공파'로, 후자를 '친공파'로 불렀다. 또한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중공군 포로들 중에서 많은 수가 장개석 휘하의 국부군 출신으로, 이들 또한 중국 본토로 송환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UN군의 포로가 된 자들 중 공산 치하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강제로 북송한다는 것은 그들을 사지 (死地)로 몰아넣는 것과 같아서 인도적으로 도무지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단,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만 송환" (Voluntary Repatriation) 원칙을 지키도록 리지웨이 장군에게 지시했다."

휴전협상에서 UN군측은 원하는 자만 돌려보내는 Voluntary Repatriation 원칙을 고수했고 공산측은 제네바협정 제 118조에 명시되어 있는 '전원 대 전원 송환' (all-for-all repatriation) 원칙을 고수했기 때문에 정전협상에서 연일 언쟁이 벌어져 이것이 약 2년 가까이 지속되었다. 결국 "원하는 자만 돌려보내자"는 UN군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되, 송환을 원하지 않는 자들은 제3국인 "한국전 휴전감시의원국에 3개월간 맡겨 그 동안 마음이 변해 본국 송환을 원하면 송환하기로, 그 기간이 지나도 역시 송환을 거부하는 자는 송환시키지 않는다"는 조건부로 일단 포로 송환 원칙에 합의를 보았다.

이는 제네바협정 118조의 전원 송환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의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면 왜 UN군측은 "원하는 자만 돌려보낸다"는 Voluntary Repatriation 원칙을 고집했는가?

i) 인도적 측면: UN군측에 잡혀있는 공산군 포로들 중에는 남한출신 포로들과 또한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포로들이 많이 섞여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원래 남한의 군인으로서 적의 포로가 되었다가 인민군에 편입되어 전투 중 UN군이나 국군에게 다시 포로가 된 자들이었다.



▲ 평양에서 정전협정문에 서명하는 조선인민군총사령관 김일성 (1953. 7. 27)

이들은 고향이 대부분 남한이었고 인민군에 편입된 것도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어서 어떻게든 남한에 남아있고 싶어했다. 또한 중공군 포로들 중 많은 수가 장개석의 국부군 출신으로서 이들 또한 중국 본토로 송환되는 것을 반대하였다.

이로써 수용소 안에서는 송환 반대자와 송환을 원하는자 두 파로 나뉘어져 치열하게 서로 죽이고 죽는 싸움이 계속되었다. 여기에서 만일 송환을 거부하는 (반공)포로들도 다 같이 공산측에 송환할 경우 그들이 송환 후 아주 가혹한 보복제재를 받게될 것은 뻔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반공포로들을 친공포로들과 같이 송환한다는 것은 사지로 몰아 넣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었다.

2) 군사적 측면: 반공포로까지 전원 송환할 경우 송환된 자들이 다시 재입대되어 상대편의 병력 증강에 도움을 주게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었다. 따라서 반공포로라도 송환하지 않으면 그만큼 병력 증강을 못하게 되

어 군사적으로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하는 자만 보낸다"는 Voluntary Repatriation은 오히려 적에게 역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결과가 되었다. 미군측 일부에서도 미군 포로들이 돌아오려 해도 적이 "송환을 원치 않는다"는 구실을 붙여 억류할 위험이 있고 또한 이는 제네바 협정에도 위배된다는 이유로 미 국방부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이 염려는 결국 현실화되어 북한이 약 8만명에 가까운 그 많은 한국군 포로들을 "그들이 송환을 원치 않는다"라는 구실로 억류하는데 이용되었다.

실제로 거제도와 부산 등 UN군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던 170,000명의 포로 중 중공군(의용군) 약 30,000명을 제외한 140,000명의 인민군 포로 가운데 많은 수가 남한 출신이었다.

또한 중공군 30,000명 중 10,000명은 중국 본토송환을 절대 거부, 대만으로 송환해 주기를 원했다. 이들이 거의 다 장개석 휘하의 국부군출신이었음은 말할 나위 없다.

한편 이처럼 많은 국군포로를 억류한 데 대해 공산권측에서도 우려하는 자도 있었다. 구 소련 붕괴후 소련 외교문서 보관소(Russian Foreign Ministry Archives)에서 나온 서류들에 의하면 당시 북한 주재 S.P. 수즈달레브(S.P. Suzdalev) 대사는 "이렇게 많은 포로들을 억류하여 어떻게 처리 하려는가? 그들 중 많은 사람은 송환 시키는 것이 옳을 것이다"[26] 라고 말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이 항복하자 소련은 독일군 포로들을 송환하지 않고 전부 폴란드에 집결시켰다가 나중에 전시에 파괴된 도로를 비롯하여 모든 시설을 복구하는 데 투입시켰던 전력이 있다.

---

26 Russian Archives(Volokhova ,2002) "Armistice Talks, P.85

| 제 3 장 |

억류된 국군포로들은 왜 못 돌아오는가

억류된 국군포로들은 왜 못 돌아오는가?

북한에 억류되어있는 국군포로들이 못 돌아오는 데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첫째가 북한이 대한민국의 국군포로들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시각문제이다.

A) 국군포로에 대한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시각:

1. 영토와 통치의 개념 차이: 북한 인민공화국에서는 한반도 전체와 부여도서를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영토로 규정하고[27] 따라서 남한도 또한 북한의 일부라고 생각한다.(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영토 범위를 한반도와 부여도서 전체로 규정한 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군은 북한 인민공화국의 인민이고 자국에 대한 반란분자들이며(한국전이 내전이라는 주장에 의해) 반역자로서 교전국가간의 포로로 인정하지 않는다.

*** 국군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들로서 이는 한반도의 통일을 방해한 반동분자들 또는 미 제국주의 지배로부터 남반도를 해방하려는데 대해 반역한 무리들로 생각하여 1949년 자기들이 인준한 제네바협정의 제 49항부터 57항까지의 포로들에 대한 강제노동, 또 자국 군대편입 등

27 북한의 조선노동당 강령 및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참조.

이 금지되어있는 항목들은 물론 "포로는 적대행위가 끝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송환하여야 한다"라는 118조 또한 국군포로들에 대해서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2.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명령 143호 위와 같이 국군포로들은 국제적으로 규정된 "전투행위 중 항복한 자 또는 전시중에 적에게 생포된 자들" 이라기보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로 조국의 통일을 방해했다가 귀순한 자들 혹은 조국의 통일 해방전선에 전향 가담한 해방전사 등으로 부름으로써 적과의 전투에서 생포된 자로 보지 않으려는 경향을 견지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이론이 좌파들이 주장하는 한국전은 '내전' 이라는 주장이다. 이렇게 한국전을 내전으로 주장함으로써 미국의 참전을 '미 제국주의 침략' 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군과 같이 연합해 전투한 대한민국의 국군은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다가 조선인민군에 의해 해방된 소위 말하는 '해방전사' 들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국전을 '내전' 으로 규정한다면 국군포로는 내전에서 붙잡힌 '폭도' 들이나 '반란군' 또는 '반동분자' 또는 '반역자' 가 되는셈이니 '포로' 에 관한 국제규약인 제네바 협정[28]을 준수할 의무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다.

오히려 이들은 1. 국군포로들을 재훈련 후 정규군에 강제 입대시켜 최전선에 투입[29] 2. 국군포로들을 강제노동에 동원한 각종 비인도적인 처우 3. 포로교환 때도 수많은 포로들을 억류한 사실 등은 그들이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일반 전쟁포로들의 대우에 관한 국제조약을 성실히 지키려는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국군포로에 대한 그들의 인식 차이를 말해준다.

---

28 1949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이 제네바 협정 (Geneva Convention)에 서명 가입했음.

29 "U.S. Army in The Korean War" written by Dr. Walter G. Hermes P.142, 그리고 탈북 국군포로들의 증언에 의함.

이러한 사상적 배경에서 선포된 것이 1956년의 내각명령 143호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사항은 소위 좌파학자들이 한국전을 '내전'(內戰)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가 국제법인 제네바협약이 적용될 수 없다는 구실을 제공하려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한국전은 세계가 다 알다시피 이데오로기 전쟁(Ideological Warfare)이었으며 당시 팽창일로의 공산주의와 전체주의에 대한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충돌이 한반도에서 일어난 것이 6·25 한국전쟁이다.

한국전은 김일성이 소련 스탈린과 중공의 모택동과 긴밀히 사전에 의논한 결과 일으킨 것으로, 이것이 단순 내전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며 소련과 중공의 공산주의 세력 대 자유 자본주의 미국을 근간으로 한 UN회원국의 연합세력간에 치른 국제전이었다.

또 한편으로 남북 간의 전쟁을 중소와 유엔군 사이에서 치른 전쟁이라는 뜻으로 대리전(Proxy War)이라고도 부르고 있다는 점은 한국전이 결코 단순한 한반도 내에서의 '내전'이 아님을 말하며 이 내전설은 북한의 각종 국제적 범법 행위에 면제부를 주려는 의도인 것으로 해석된다.

1956년의 내각명령 143호에 의한 국군포로 신분 해소는 북한이 자기들의 국내법상으로는 더 이상 포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론의 근거가 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북한은 항상 "북한 내에는 한 사람의 국군포로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언명해왔다. 그간 양쪽의 많은 물밑 접촉과 또 수차례의 장관급 회담에서나 2007년 10월 노무현 김정일 간의 최고 정상회담에서도 우리 쪽에서 (남한) 국군포로 문제만 제기하면 계속되던 회담도 딱 끊기고 북한 측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소위 "태양처럼 받드는 위대한" 김일성 수석이 인민공화국 내각명령 143호 발포 후 "북한 내에는 포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한 마당에 그 정권을 세습해온 자손들이 감히 위대한 김일성의 뜻을 뒤집고 지금 새삼 "(국군)포로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회담 때 포로 문제만 나오면 일체 함구하고 더 이상 대화가 진행되지 않는 이유이다.

3. 김일성과 모택동의 포로 처리에 관한 합의: 북한은 항상 국군포로들은 자기 의사에 따라 포로교환 시 전원 다 송환되었다고 거짓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구 소련 붕괴 이후에 공개된 외교문서(Russian Foreign Ministry Archives)는 북한측의 주장이 완전히 거짓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구 소련의 외교문서 P.89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1953년 12월 2일 페도렌코(Nikolai Fedorenko, *UN안보리 구소련대표 역임)가 외무장관 모로토프(Vyacheslav Molotov)에 보낸 각서에 의하면 〈13,094명의 이승만 군대(RKA, 국군)와 북한군(KPA)에 편입되어 있는 6,340명 및 내무성 철도청 등에서 일하는 많은 포로들과 42,262명의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던 (국군)포로들의 송환처리 문제를 위하여 당시 베이징(북경)에 있던 김일성이 모택동에게 의논했을 때 "국군포로들을 늦게 보내면 우리의 위반사실의 구실이되니 보내지 말고, 북쪽지역으로 산개시켜 탈출하거나 중립국 대표들과 접촉하는 일을 방지 하겠다"라는[30] 한 기록문서는 북한측이 항상 주장해온 모든 포로들은 자기 의사에 따라 정원 송환됐다는 것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정책이 유럽 우선주의였던 당시 공산세력은 팽창일로여서 2차 세계대전으로 극도로 가난해진 나라들, 특히 피폐해진 동유럽의 각 국이 속속 공산진영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더욱이 새로 설립된 NATO(북대서양 동맹기구)의 병력 증강이 시급한 때라 미국으로서는 더 이상 한반도에만 많은 병력을 붙들어놓을 수도 없는 사정이었다. 또한 미국내에서 날로 번져가는 반전 기운은 한국전의 조속한 휴전(정전)체결에 무한한 압박으로 작용하였다.

---

30 Archives. Armistice Tallks in Korea (1951–1953) (Based on Documents from the Russian Foreign Policy Archives) P.89

B) 한국전과 당시의 세계정세(미국내 정치적 상황)

1. 미국 내의 반전 기운: 한국전이 별 진전도 전과도 없이 장기화됨에 따라 미국 내에서 "왜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한국이란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많은 희생을 치르고도 또 전쟁을 계속해야 하느냐"하는 반전 기운이 팽창하기 시작하였다.

이 반전기운을 이용해 미국 34대 대통령에 입후보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후보는 "당선되면 한국전은 꼭 끝내겠다"라는 슬로건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극동사령부와 8군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정전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극동사령부와 미8군은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이 포로문제가 비록 만족스럽게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적에게 타격을 가하면서 휴전 (정전)협정을 질질 끌고만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다. 또한 여기에 전술한 바와 같이 동유럽이 급속히 공산화되어가는 시점에서 하루 빨리 한국전을 끝내지 않으면 안되는 압박도 가중된 형편이었다.

2. NATO 설립문제: 세계 2차 대전으로 인한 숱한 생산시설의 파괴와 살육은 많은 나라들을 빈곤으로 몰아갔고 이 빈곤은 소련의 사회주의 팽창에 큰 기회를 제공하였다. 전쟁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입고 소련과 지리적으로 가까웠던 동유럽 각국은 급속히 공산화되어가고 있었다. 원래 유럽 위주의 미국으로서는 유럽의 공산화를 막는 것이 급한 터라 하루 빨리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정착 시켜야 한다는 초조감에 정전협정에서 포로교환 문제 등에 다소 허점이 있음을 감지했음에도 빨리 한국전을 끝내려 했다.

한국전 포로송환 과정에서 국제적십자(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Red Cross)가 포로교환 때 북한 내 억류 포로들을 직접 면접하여 본인의 송환 의사를 타진하겠다는 것을 북한이 반대했을 때 이 반대를 무릅쓰고 직접 북한 내에서 포로들을 면접했어야 하는데 이를 못하고 북한측이 판문점으로 후송해 온 포로들만 면접한 결과가 오늘날 그 많은

포로들이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억류되어 못 돌아오게 된 것임은 말할 나위 없다.

C) 한국 내에서의 국군포로에 대한 시각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우리 한국측의 국군포로에 대한 시각은 어떠하였을까?

1. 정전협상에서 한국군 대표들의 국군포로 송환문제에 대한 노력:

필자는 2005년 한국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강영훈(姜英勳)씨를 만나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점심을 같이 하면서 휴전회담 당시 왜 그토록 많은 국군포로들이 인민군(북한군)에게 붙들려 있었음에도 우리측 대표들이 이들의 석방을 위해 별 노력을 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었는지 당시의 상황을 물었다.

(강영훈 전 국무총리는 6·25 한국전 당시 국군연락 장교단의 단장을 오래 역임한 분으로서, 한국군과 미국군과의 작전상 여러가지 연락을 맡아하신 분이며 한국전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다. 5·16박정희 군사 쿠데타 때는 이를 반대한 이유로 당시 육군 중장에서 강제 예편되었고 미국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의 USC에서 박사과정을 수학 할 때 당시 UCLA에 재학했던 필자와 친분이 있었고 또 학생때 그분의 친구가 나와 친한 분이기도 하여 서로가 잘 아는 사이였다)

필자의 질문에 강 전 국무총리는 다만 "마지막 한국군 측 정전협상단 대표였던 최(덕신) 장군이 좀더 강력하게 한국군의 포로송환 문제에 적극성을 띄었더라면 포로문제가 이러한 결과가 안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말만 하였다.

필자는 한국전의 휴전문제와 포로송환 문제에 관한 많은 서적과 기록문들을 읽었고, 그중에서도 한국전의 포로문제를 가장 상세히 서술한 허머스 박사(Dr. Walter G. Hermes)가 쓴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를 수차 반복 정독하였

지만 포로협상 한국측 초대 한국군 대표 백선엽 장군을 비롯하여 마지막 한국군 대표 최덕신(崔德信) 장군에 이르기까지 한국군측 대표가 국군의 포로송환 문제에 대한 어떠한 주장을 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가 없었다. (포로교환 문제는 휴전협상 마지막에 타결된 문제이기에 한국측 대표의 역할도 중요했다고 본다.)

따라서 강 전 국무총리의 한마디는 정전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포로송환 문제가 가장 치열하게 거론될 때 우리측 대표(최덕신 소장)가 이 문제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지 않은 것 같은 뉘앙스를 받게 되었다.

또 한편 전시전후를 걸쳐 국방부에 오래 근무한 필자의 지인이 국방부 내부에서도 포로 문제에 대해선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자가 많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필자의 생각에는 이러한 시각을 가진 이유가 포로들은 "군인의 본분인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고 자기 한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비겁하게 적에게 투항한 자"들이라는 선입견이 지배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일본군의 전진훈(戰陣訓)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31]

한국전 발발 당시 고급 장교의 대부분이 일본군 출신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를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태평양전쟁 때 일본군은 유황도, 오키나와 전투 등에서 대부분 전멸될 때까지 항전했으며 마지막에는 거의 다 자결로서 끝을 맺었다.

2. 남한 일반 민간인의 국군포로 송환에 대한 관심:

일반 민간인들은 고 조창호 중위가 한국전에서 포로가 되어 북한에 억류 되었다가 1994년 목숨을 걸고 탈출, "북한에 많은 국군포로들이 붙잡혀 있다"라고 처음 그 진상을 폭로할 때까지 국군포로들이 강제적으로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

31 일본의 전진훈에는 "군인은 적에게 생포가 되는 치욕 보다 자결로서 그 명예를 시키라"라는 구절이 있음.

필자 역시 한국전에 직접 참전하였지만 포로문제는 포로교환 조약과 정전 협정에 의하여 정전이 성립되자 60일 이내에 포로교환이 잘 되어 돌아 오고 싶은 자들은 다 돌아왔고 또 가고 싶은 자는 자기의 자유의사에 따라 북한으로 되돌아간 것으로만 생각했지, 그 많은 포로들이 강제로 억류되어 있을 것으로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다.

(*** 필자 역시 전투 중에 부상을 당하여 병원에서 1년 이상 치료를 받고 퇴원하자 곧 명예제대했고, 바로 미국 유학을 왔기 때문에 포로문제에는 관심을 가질 겨를도 없었지만 조창호 중위의 탈북을 계기로 북한에 많은 포로들이 억류되어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고 조창호 중위에 의하면 김영삼 집권기인 1994년 북한에서 처음으로 탈북해 왔을 때는 굉장한 환영을 받았고 또 정부의 후원 하에 포로문제에 대해 여러 학교를 비롯하여 많은 곳에서 강연도 했고, KBS 등을 통하여 북한에서의 어려웠던 포로생활 등을 기록영화로 만들어 방영도 하고 일반극장에서[32] 상영도 하였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1997년 이후에는 모든 미디어를 통해 포로문제 보도는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지양하도록 하였고, 동시에 조창호씨에 대해서도 일체 강연 등을 금지시켰으며 외부출입을 제한하여 연금 상태로 대외 활동을 못하게 하였다고 한다.[33]

그 뒤 필자가 관여하는 '국군포로송환위원회'가 2004년 미국에서 결성되어 2005년부터 미 국회를 비롯한 정계에 국군포로 송환을 위한 각종 포럼, 세미나 등의 활동과 동시에 또한 한국정계, 특히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씨를 비롯하여 김문수씨, 황진하씨, 박진씨 등 많은 분들이 여기에 호응하여 한국 국회 내에서도, 또 각 신문사 특히 세계

---

32 고 조창호중위의 북한에서의 포로생활과 탈북에 관한 Video "돌아온 망자"와 KBS방송사 제작의 "조창호 국군포로 탈출기"가 있음. 원하시는 분은 국군포로송환위원회 미주본부에서 무료로 DVD를 보내드리도록함. 전화번호 (323)931-7311 또는 (714)717-1121 또는 이메일 chungpow@hotmail.com 또는 tombyun@yahoo.com 으로 연락바람. 단 송료는 본인부담.

33 이 이야기는 고 조창호 중위가 2005년 4월에 필자와 같이 미 국회 의사당에서 국군포로문제에 대한 포럼 (forum)에 참가차 같이 가면서 한 이야기며 그뒤에도 함께 다니면서 수차례 이 이야기를 되풀이 하였음.

일보, 국민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각종 일간지들도 포로문제를 보도하기 시작했고 일반 국민들도 국군포로 송환문제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는 듯 했다.

그러나 정전 후 이미 40여년이 지나 국민들의 뇌리에서 차차 포로문제가 사라지려는 무렵 김대중의 좌파정권이 수립된 이후에는 여당인 민주당과 그 뒤를 이은 열린우리당의 집권세력은 국군포로 문제 제기는 햇볕정책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마당에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정책적으로 덮어두려고 애썼다.

또한 이념적 면에서 주사파를 비롯, 같은 민족끼리를 내걸고 미국의 한국전 참전을 우리 민족의 통일전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는 종북파들의 발호가 그 큰 원인이었다고 본다.

그 뒤를 이은 좌파정권의 노무현 정부에서는 노골적인 반미감정까지 노출시킴으로써 한국전에서 조국을 위하여 희생한 자들의 충성심은 완전히 퇴색 되었다.

그러한 사조를 대표한 자 중에 강정구 교수를 꼽을 수 있다.

강정구 교수는 "한국전은 한반도(적화)의 통일전쟁이었으며 이를 방해한 자는 미국"이라는 미국의 한국통일 방해론을 주장했다. 따라서 북한의 남침에 대항하여 미국과 함께 북한의 침공을 막은 대한민국 국군은 한반도의 통일을 방해한 미 제국주의의 앞잡이였다는 뜻을 내포한다.

이러한 시각의 소유자들이 발호하는 남한에서 국군포로들에 대한 편견은 북한의 시각과 일치하는 것이며 따라서 국군포로가 조국의 방위를 위하여 희생된 자로 인식될 리가 없는 것이다.

한편 한국전에서 실제로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자의 대다수는 가난하고 높은 교육도 받지 못한 남한사회의 어려운 계층(소위 힘없고 빽없는 자들?)이 많았다.

일제 식민지의 착취에서 벗어난 한반도는 극도의 가난에 시달렸고 북위 38도선 이북은 소련의 뒷받침 아래 이미 완전히 공산화되었다. 남한 안에서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표방한 미 군정의 정책은 민주주의를 체험해본 적이 없는 남한사회를 더욱 더 혼란과 무질서에 빠뜨리게 했다.

여기에 좌우간 이념 충돌은 신생 대한민국이 국가로서의 법질서가 자리도 잡기 전에 6·25가 발발함으로써 공정하고도 강력한 법질서를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환경에서 고위 고관이나 부유층의 자식들은 거의 다 돈과 권력을 이용, 병역을 기피했으며 그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지배계층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남한에서 억류 국군포로 문제가 피안의 불구경처럼 심각하게 거론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간주된다.

이것은 오늘날 10대 재벌 총수들 중(현대를 제외하고) 그 어느 재벌의 자식도 한국전에 참전했거나 군복무한 자가 없다는 사실과 또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주 드러난 바와 같이 고위공직 내정자의 많은 분들이 군복무를 기피한 자들이었다는 사실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와 그릇된 이념에 물든 자들이 적지 않은 사회에서 국가 방위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영어의 몸이 된 국군포로의 송환 문제가 거국적으로 거론된다는 것은 참으로 연목구어(緣木求魚) 격이 아닌가 생각 된다.

D) 공산측은 더 많은 국군포로들을 억류하려했나

그러면 왜 공산측은 그토록 온갖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능한 한 많은 국군포로들을 불법적으로 억류하려 했을까?

ㄱ) 첫째는 가능한 최대한의 포로들을 잡아두었다가 전시 중에 파괴된 모든 항만, 도로, 교량 등의 보수와 지하자원의 광물과 석탄 채굴 등의 강제노동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한국전에서 미군의 압도적으로 우세한 공군력은 북한의 제반 군사시설은 물론 철도, 도로, 항만 등 모든 군수품 수송 수단의 철저한 파괴를 가져왔고, 전투에 절대 필요한 군수물자와 병력 이동이 거의 차단되어 오직 야간에만 인력으로 수송하는 형국이었으므로 파괴된 시설의 복구는 매우 화급한 문제였다. 이러한 북구사업과 석탄 및 지하자원 채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적자원을 억류 국군포로를 이용한 것이다.

실제로 1994년 탈북한 고 조창호 중위와 그 후 탈출해온 국군포로들

도 강압에 의해 인민군에 입대한 자 외에는 전부 강제노동에 종사했다고 증언하였다.[34]

이와 같이 포로들을 강제노역에 동원하거나 자기 군에 편입하는 것은 제네바 협정에 명백히 위반됨은 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공산측은 구 소련의 외교문서(Documents of the Russian Foreign Ministry Archives)에 나타난 바와 같이 스탈린도 모택동도 포로는 가능한 많이 잡아두는 것이 좋다는 권유의 구절에서와 같이 가능한 많은 포로들을 억류하는 것이 기본방침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많은 포로들을 잡아두려고 계략을 꾸몄다.

ㄴ) 북한의 정규 인민군은 전쟁 중 미국의 육 해 공군의 가공할 화력에 많은 사상자를 내어 지상군 병력이 극히 부족했고, 그 보충으로 억류 포로들을 사용했으며 또한 앞으로도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ㄷ) 북한군은 한국전에서 지상군의 대부분을 잃었기에 또한 북한인구의 남녀 비율에서 여자가 엄청나게 많아 사회적 불안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1956년 모든 억류 포로들에게 공민증(시민권)을 교부함과 동시에 강제 결혼을 시킨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탈북 국군포로들의 증언에서)

특히 UN군측은 북측이 많은 포로들을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억류하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휴전감시위원단 산하의 국제적십자위원단(ICRC)에게 북한에 입국하여 억류되어 있는 포로들을 직접 접견하고 본인의 의사를 타진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앞에 서술한 바와 같이 이상조 북한 인민군 부대표가 "국제 적십자 위원들이 입북하여 포로들을 직접 면접, 본인의 송환여부 의사를 타진한다는 것은 하나의 구실이고 사실은 북한의 군사시설 등을 탐사하기 위한 목적의 간첩행위"라며 "비록 정전협상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ICRC의 입북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반대해 북한에 억류되어있던 포로들의 송환 의사 여부를 직접 타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34 별첨 B의 탈북국군포로들의 증언 참조. *** 탈북 국군포로들은 대부분 가족들을 이북에 두고 있다.

못하였다.

사실 북한으로서는 포로들을 재교육시켜 인민군에 재입대시킨 것을 비롯, 전 포로들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광산 등지에서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던 차라 이 모든 것이 제네바협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국제적십자위원(ICRC)들을 입북시켜 직접 포로 당사자들과 면접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UN군 포로 92,070명 중에서 포로교환으로 돌아온 13,444명(이 중 한국군포로 8,321명)을 제외한 남은 78,636명(이들 대부분이 한국군 임)은 송환을 원하는 자만 송환한다는 원칙을 거꾸로 이용, 이를 구실삼아 돌려 보내지 않았다. 그것이 (국군)포로들이 현재까지도 이북에 억류되어 돌아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한편 포로문제로 정전협상이 답보상태에 놓여있던 중 정전협상의 진행이 탄력을 받기 시작한 것이 1953년 3월의 스탈린 사망으로 국제정세에 큰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이다.

구 소련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유럽 전선에서 많은 독일 포로들을 석방하지 않고 폴란드에 집결시켰다가 종전 직후 이들을 오래토록 자기들의 전후 시설복구에 동원하였다가 나중에 돌려보냈다. 또한 극동전선에서 일본군이 항복하자 많은 포로들을 억류하여 시베리아 개발에 사역시켰다가 5년이 지난 뒤에야 생존자들을 돌려보낸 역사를 가진 나라이기에 제네바 협정 같은 것에 유의하지 않았던 나라였다.

여하튼 한국전의 경우 북한이 많은 포로를 억류한 데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전후복구를 위한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함에 어떻게든 포로들을 잡아두어야할 필요성에서 때마침 포로교환 원칙에서 UN(미국)측의 인도주의에 입각한 자기 의사에 따라 송환한다는(Voluntary Repatriation)의 조항을 역으로 십분 활용한 것이다.

물론 UN군측에서 휴전감시위원단(인도, 체코, 폴란드, 네덜란드, 스위스)하의 국제적십자위원회 (International Committee of Red Cross… ICRC)가 남한에서와 같이 북한에 억류되어있는 포로 각자들을 만나 그

의사를 타진할 기회가 있었다면 저토록 많은 포로들이 자기의 의사와는 반대로 강제 억류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실제로 이루어진 포로교환의 숫자는 어떠한가? 다음은 남북간에 교환 된 송환포로의 실제 숫자이다.[35]

A) 공산측에 억류된 전 UN군(한국군 포함)의 총수 ... 92,070명 [36]
B) UN군(남쪽)으로 돌아온 포로 총수 ..... 13,444명 [37]
(돌아온 포로중 USA미군 ..... 3,746명)
(한국군(ROK) ..... 8,321명)
(영국군 및 기타국 ..... 1,377명)

.....

B) 공산군(북측)으로 돌아간 포로 총수 82,493명
(인민군..... 75,823명)
(중공군..... 6,670명)
*** 공산측이 정전협정 직전에 제출한 북측의 관리하에 있다는
(UN군 포로 총수 ..... 92,070명)[38]
(이중 송환된 총수 ..... 13,444명)
억류된 포로 총수(송환을 원치 않는다는 구실로) .. 78,636명
(이들 거의 대부분이 한국군 출신임)

*** 여기에서 억류된 78,636명 전원이 과연 자의에 의해 북한 잔류를 원했는지가 필자의 조사 초점이었다.

이를 위해 고 조창호씨를 비롯해 그 뒤 탈북해온 많은 국군포로들을 만나 "왜 포로송환시 남한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가 몇십년이 지난 지금

35 Dr. Hermes' "US Army In Korean War… Appendix B
36 Monument of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Park in DC
37 Monument of the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Park, Washington DC
38 Monument of the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Park, Washington DC

목숨을 걸고 탈출해왔느냐" "그동안 북한에 잔류 중에는 어떠한 생활을 했느냐" 등에 대해 깊이 캐물었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자의로 남아 있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었다.

이상과 같이 국군포로들이 오늘날까지 못 돌아오는 데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지만 요약하면, 첫째는 포로교환 조건인 '자발적인 의사에 맡긴다'는 Voluntary Repatriation이 적에게 역이용당한 것이고, 둘째는 UN군의 주축인 미국의 국내외 사정이 적의 허구를 끝까지 추궁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고, 셋째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모두가 이 포로문제를 피안의 불 보듯 했다는 점, 넷째로 공산측은 처음부터 국군포로는 가능한 많이 잡아두겠다는 심산이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제 4 장 |

탈북포로들의 억류 중의 삶에 대한 증언들

탈북포로들의 억류 중의 삶에 대한 증언들

여기에서 실제로 포로교환 때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 78,636명 중 1994년 조창호 중위를 시발로 2010년까지 탈북해 온 78명의 국군포로(그 후 사망한 10여명을 제외한 51명이 이 글을 쓸 때 생존중임)의 북한에서의 포로생활이 어떠했는지는 별첨의 증언서에서 잘 말해주고 있다.

필자는 특히 고 조창호 중위(2006년 사망)와는 그가 사망할 때까지 늘 접촉을 가졌으며 또 사망 당시 그를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재향군인회 회장(會葬)으로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이 그래도 고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주었다고 생각된다. 역사적으로 처음이었던 재향군인회장으로 거행할 수 있었던 것은 고인과 육군종합학교 동창이었던 이완춘(李完春, 퇴역 중령)씨의 절대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여하튼 필자는 그의 생존 중에 미 국회에서의 증언을 위하여, 또 한국 국회의원들과 각 요로 인사들을 만날 때 늘 그를 데리고 다녔기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조창호씨의 한국군 입대로부터 탈북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상세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유일한 사람이라고 자부한다. 여기에 고 조창호 중위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를 요점만 추려 충실하게 옮김으로써 대다수 억류 포로들의 생활을 추리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가능한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다음과 같이 옮긴다:

a) 고 조창호 중위의 북한에서의 생활과 탈북까지의 이야기



▲ 조창호 중위

조창호씨는 연세대 교육과 1년때 6·25가 일어나 육군종합학교에 24기로 입교, 2개월 훈련 후 또 다시 포병학교에서 2개월 더 보충교육을 받고 1953년 포병 소위로 임관되었다. 이와 동시에 한국군 제9사단 포병 제2대대에 배속돼 관측장교로 근무하던 중 중공군 제5차 총공세 때 중공군의 급습으로 전 부대가 붕괴되었다.

조창호 소위는 며칠동안 산 속에서 해매다가 마침내 어느 민간 독립가옥을 발견하고 그 집에 물을 마시기 위해 들어갔는데 그 집 방 안에 있던 중공군에게 발각 생포되었다. 그는 북한 인민군에게 인계되는 순간 도주하다가 또 다시 인민군에게 잡혀 죄질이 나쁜 악질분자로 분류되어 아오지탄광에 강제 중노동자로 보내졌다.

당시 약 500명으로 추산되는 국군포로들과 북한정치범들이 그 탄광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입소 당시 국군포로들에게는 이불도 베개도 치솔, 치약도 주지 않았다. 그나마 북한 출신 정치범들에게는 입마개(Mask)가 별도로 공급되었는데 혹한의 아오지에서 이불, 베개 하나 없이 지내면서 한 5년쯤 되니까 탄광의 지독한 먼지에 기관지가 막혀 숨쉬기도 말하기도 힘들게 되었고, 10년쯤 되는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입안의 전 치아가 한꺼번에 몽땅 다 빠져버렸다고 한다.(12년동안 치솔 한번 못 썼다고 함).

12년뒤 탄광에서 풀려나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부인은 어떻게 되었는지 남한사람이었다고 한다. 그 후 첫 아이로 남자 쌍둥이를 낳았고, 몇년 뒤 딸 하나를 얻어 2남1녀를 데리고 굶주림과 극도의 가난 속에서도 오순도순 살았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 사정이 점차 어려워지니까 가장 먼저 사회의 제일

밑바닥에 속하는 국군포로 출신들부터 식량배급이 줄기 시작, 끝내는 완전히 배급을 타지 못하게 되어 어떻게든 자력으로 식량을 구해야 했다. 조창호씨는 두 아들과 집 뒤에 있는 산을 일구어 강냉이와 옥수수 등을 심어 간신히 아사를 면했다.

하루는 부인이 갑자기 없어져 집으로 돌아오질 않는 것이었다. 여러가지 수소문 끝에 당의 보위부에서 연행한 것을 확인했는데 그 이유가 자기 부인이 매달 한번씩 남편의 동태를 당에 보고(밀고)해야 하는 것을 몇 달 동안 안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죽음을 앞두고 남쪽을 그리워하다:

그러던 중 먼지 많은 탄광에서 마스크 하나 없이 너무나 먼지를 많이 마셔 호흡곤란을 일으켜 기폐증이 되었고, 그 위에 극도로 쇠약해진 몸으로 아무래도 곧 죽을 것만 같아 하루는 뒷산에서 땅을 일구다가 따뜻한 양지에서 두 아들과 함께 쉬면서 "내가 아무래도 오래 못 살 것 같으니 내가 죽으면 여기 이 따뜻한 곳에 묻어다오. 그리고 비문에는 아무것도 쓰지 말고 다만 '남쪽 에서 온 사람' 이라고만 써달라" 고 했다. 필자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으로 숙연해짐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러한 생활 중에 1987년쯤 된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찾아와 "당신 남쪽 출신이 아니요" 하고 묻기에 처음에는 도대체 이 사람의 정체가 뭣인지 잘 몰라 우물쭈물했더니 "당신 서울에서 왔소?" 라고 묻기에 고개를 끄덕였더니 자기가 서울을 종종 오가니까 친척이나 가족들에게 당신 소식을 전해 주겠노라며 친척주소를 묻기에 일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북 한에서는 서로가 감시하고 밀고하기 때문에 서로 경계한다고 함) 그 뒤에 도 또 서울의 친척에게 안부를 전해주겠노라고 말을 건네왔으나 경계심이 앞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탈출 계획:

그 뒤에도 그 사람이 그 곳을 지날 때마다 때때로 찾아와 같은 권유를 하기에 어차피 얼마 못 살 터이니 보안당국에 잡혀가 맞아죽으나 여기

서 얼마 못 살고 죽으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돼 "그러면 우리집에 연락을 좀 해달라" 며 자기 큰 누나가 있는 성신여대 주소를 알려주고 편지를 전해달라면서 그 편지 속에 자기가 늘 품고 있던 어머니 사진을 동봉해 보냈다.

서울에서 당시 성신여대 문리대 학장으로 있던 큰 누나는 그 편지와 동봉해온 어머니 사진을 보고 자기 동생 창호가 틀림없다고 믿고 그 사람(브로커)을 따라 북경을 거쳐 두만강 저쪽에서 북한 아오지의 조창호 집이 보이는 데까지 갔다.

큰 누나를 안내한 브로커는 "당신이 원하면 내가 강을 건너가 동생을 당신이 알아볼 수 있는 지점까지 데리고 나오겠다" 고 했으나 누나는 자기 동생 신변의 위험을 염려해 그대로 돌아왔고, 그 뒤 브로커에게 적지 않은 돈을 지불 (액수는 필자에게 말하지 않았음) 대련(大連)에서 야간 밀항을 주선해주어 똑딱배 바닥에 숨어 탈출했다고 한다.

자식들과의 가슴 찢어지는 이별:

탈출하기 직전 자기 아이들 셋을 불러 같이 가자 했더니 아들들이 "아바이 혼자 떠나시라오, 여러 사람이 같이 가면 중간에 붙잡힐 위험이 더 많으니 아바이 혼자 떠나시라오. 우리들은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갈 것이니 빨리 여기를 떠나시라오" 하기에 그러면 막내딸이라도 같이 데리고 가겠노라 했더니 그것도 위험하다며 한사코 혼자만 떠나시라고 밀다시피하여 모두가 대성통곡을 하며 미어지는 가슴을 안고 후일을 기약하며 혼자만 탈출 했다면서 눈물을 씻기에 필자 또한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금할 수 없었다.

꿈에 그리던 남한에 도착:

그 브로커의 주선으로 깜깜한 밤중에 허름한 목선 똑딱배를 타고 선창 밑바닥에 숨어서 몇시간을 오는데 갑자기 배가 정지, 한국 해양경비대의 검색에 걸렸다.

해양경비대는 선창에 숨어있는 조창호를 발견, 몇가지 신문 끝에 탈북 국군포로라는 것을 알자 갑자기 태도가 공손해지면서 자기 선박으로 모시겠다며 인천까지 그 경비선으로 호송해왔고 곧 병원으로 보내져 신체검사 등을 다 마치고 그 이튿날 국방장관이 직접 병원을 방문, 다음날 귀대 보고 겸 제대식을 마쳤다.

(*** 필자가 2004년 11월 4일 조창호씨를 삼일빌딩 루프 가든(Roof Garden) 식당에서 처음 만났을 때는 심한 기폐증으로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어 부인(탈북 후 남한에서 재혼했음)을 통하여 간신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였으며 종내는 이 기폐증이 폐암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다른 장기로까지 전이되어 2006년 11월에 작고하였음.)

북한에서의 완전히 격리된 광부생활:

조창호씨의 말에 의하면 자기들은 탄광에서 일반사회와는 완전히 격리되어있어 휴전회담이 진행되고 있었는지도, 포로교환이 있었는지도, 바깥 세상 돌아가는 일은 전혀 알 길이 없었고, 또 그 누구도 포로송환 문제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나 송환문제로 본인들에게 의사를 물어보는 사람도 물론 없었다.

이러한 사정은 모든 국군포로들에게는 다 같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우리들이 자진해 남겠다"고 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단언하였다. 또한 가령 어느 지역에서 국군포로들을 다같이 모아놓고 "여기 이 중에서 남쪽의 미 괴뢰정부에게 돌아가고 싶은 놈은 지금 손 들어보라" 했을 때 살기등등 하게 총칼을 겨누고 둘러 서있는 인민군들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지 않는 한 그 누가 감히 손을 들 수 있었겠는가" 라고도 덧붙여 말하였다.

따라서 자의에 의해 남겠다고 한 자가 있었다면 그는 열렬한 공산분자였을 것이고 만일 있었다면 극히 적은 숫자였을 것이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억류 국군포로들은 거의 다 남한에 가족, 일가친척을 둔 남한출신들이었기 때문이다. (*** 고 조창호씨의 포로생활과 탈출에 관하여는 '돌아온 망자' 라는 제목의 비디오가 있으니 구해보시기 바라며 못 구하

시면 e-mail 주소: chungpow@hotmail.com 혹은 tombyun@yahoo.com 이나 미국 전화 714-717-1121의 국군포로송환위원회의 변홍진 사무총장에게 요청하면 무료로 보내드린다.)

b) 기타 탈북 포로들의 북한에서의 삶에 대한 수기들:

현재 탈북 국군포로들 중에서 북한에서의 포로생활에 대한 수기가 단행본으로 나온 것으로는 유영복씨의 '운명의 두 날' (원북스 2011년 발행), 영문판으로는 'Tears of Blood' (번역 Paul T. Kim)이 있고, 또 허재석 씨의 '내 이름은 똥 가나새끼' (원북스 2008년 발행)이 있다. 기타는 별첨 증언집을 참고하시면 되며 그들의 고된 삶은 고 조창호씨의 이야기와 대동 소이한 것으로 생각된다.

| 제 5 장 |

억류 국군포로들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했나?

억류 국군포로들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했나?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도 벌써 60여년의 긴 세월이 흘렀다. 그간 나라를 지키다가 영어의 몸이 되어 60여년간 억류되어있는 국군포로의 송환을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을까?

A) 대한민국의 역대 정권들의 국군포로 송환 노력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정권 하에서 일어났던 6·25 한국전은 국군의 지휘 통수권을 UN군에게 넘겨줘 미군을 주축으로 한 UN군의 힘으로 간신히 남한은 전쟁 이전의 영토를 되찾았다.

그러나 초토화된 국토에는 빈곤과 혼돈만 존재하여 내일의 연명에 정신이 없었고, 남북관계는 극도의 증오와 긴장감이 충만했을 때였던 만큼 이북 정권에 포로송환 문제를 꺼낼 형편이 못됐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 4·19 학생봉기로 정권을 잡은 장면 정권은 민주당 내에서 신구세력 싸움으로 정치는 간 곳 없고 정부의 기능은 거의 마비상태로 우왕좌왕하던 중 1년도 못 가 군부의 쿠데타로 인해 붕괴되었다.

반공과 빈곤 탈피를 슬로건으로 내건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수립되자 북한은 "남한의 군사 독재정권과는 일체의 타협도 협상도 있을 수 없다"고 선언했으나 박정희 정권은 남북 간의 안정을 위하여 당시 이후락 중앙 정보부장을 밀사로 북파하여 얼어붙었던 남북관계 개선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 그때 이후락 부장이 국군포로 문제를 언급했다는 소문은 있

었지만 기록이 없어 그 진실은 알 수 없다.

그 다음의 전두환 군사정권 역시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했다고는 하나 군사 독재 정권과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김일성의 태도에 국군포로 문제에 관해 이렇다 할 협상을 한 흔적은 없었다. 그 다음 노태우 정권 역시 군사 독재 정권이라는 이름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고 정부의 무관심은 물론 국민 전체도 포로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바가 없었다.

그러나 그 다음 처음으로 들어선 민간 김영삼 정권이 탄생했으나 포로 송환 문제에는 별로 노력한 흔적이 안보이던 중 1994년 조창호 중위(당시는 소위)의 탈출로 북한에 많은 국군포로들이 잡혀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폭로 함으로써 포로에 대한 관심이 솟아나는 듯했다.

조창호 중위가 정부의 협조 아래 여러 곳에서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강연 등을 가졌으나 그 후 뒤를 이은 햇볕정책을 모토로 한 김대중 좌파정권이 들어서면서 조창호 중위의 북한 실상 폭로행각에 제동이 걸려 일체 포로 문제가 언급되지 못하게 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내세우면서 2000년 6월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3일간의 양자 수뇌회담이 개최되었고 그 끝에 발표된 것이 6·15 남북회담 공동성명서[39] 이다.

별첨 C)와 같이 서문과 5개항으로 구성되어있는 그 내용은 우리 한민족 끼리를 구가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남한의 3단계 통일론의 유사점을 감안하여 한반도의 통일을 추진토록 하는 데 합의를 봤다는 내용과 함께 제3항에 "오는 8·15를 즈음하여 양쪽의 이산 가족 상봉"을 추진한다는 것과 남한에 억류되어있는 북한의 미결 장기수 석방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것 등이었다.

여기에서 가장 괴의한 것은 남한의 대통령은 헌법상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 임에도 자기 나라의 방위를 위해 싸우다가 포로가 되어 불법으로 억

39 별첨 C. "6.15공동성명서" 전문 참조.

류된 자기 부하 국군포로송환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다는 점이다.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자기부하 78,636명이 조국을 지키다가 포로로 불법 억류되어있는 문제는 전혀 한 마디의 언급도 없고 반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던 가장 위험한 미전향 장기수 간첩 62명의 석방 문제에는 기꺼이 합의했다는 것은(6·15 공동성명 제 3항 참조)[40]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분이 어느 쪽의 대통령인지 필자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필자는 62명의 비전향자를 석방한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석방에는 일체 함구하면서 62명의 장기수 석방문제에는 그토록 열의를 보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만일 남북간의 관계 개선이라는 미명 하에 국군포로 문제와 납북자 송환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는 분명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국민 보호의 의무를 포기한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그 뒤 필자가 북한에서 탈출해온 국군포로 가족회 회장인 이도순(가명)씨를 만났을 때 그를 통해 6·15 정상회담에 대한 억류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이 겪은 실망감을 들은 적이 있었다.

국군포로를 아버지로 가진 이도순씨 가족은 2000년에 처음으로 남한 대통령이 북한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남한 대통령이 우리 국군포로들을 데리고 갈 것"이라고 믿고 너무나 좋아하며 흥분하여 잠도 못 자고 장농 속에 아껴뒀던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기대 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대통령이 국군포로들을 만나준다는 소식은 고사 하고 포로 문제는 일체 일언반구도 언급이 없다가 6·15 공동성명서에 남한에 억류되어있는 북한의 비전향 장기수 석방에 대해 노력한다는 조항을 읽고는 하도 억장이 무너져 그날 밤 온 가족이 서로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울면서 이제 우리는 여기 이 땅에서 죽어야 하는구나 하며 그 배신

40 6.15 동동성명서 제 3항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 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하였다." 이 합의조항에 의거 김대중정권은 그해 (2,000년) 8.15일에 비전향 장기수 전원 62명을 석방, 북송하였다.

감에 너무나 실망하여 정말 죽을 수만 있었더라면 차라리 죽었을 것이라고 필자에게 그 당시의 절망감을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국군포로 가족들의 실망과 배신감과는 정 반대로 그 당시 남북간의 정상회담을 추진하여 김대중 대통령을 수행하고 6·15 공동성명을 작성하는데 일등 공신인 당시 통일부장관 임동원(林東源)씨는 6·15 정상회담 회고록인 "피스 메이커: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 20년" (Peace Maker) 에서 6·15 공동 성명을 반대하며 국군포로 송환문제를 요구한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보수 단체들을 남북간의 평화를 해치는 "냉전 수구세력의 방해"라고 매도하고 있다.[41]

여기에서 우리는 당시의 집권층의 포로문제에 대한 시각과 가려진 정책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는 북한의 핵 개발과 장거리 유도탄으로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북한 당국의 협박과 연평도 포격사건, 천안함 격침 등을 보면서 관연 임동원씨에게 지금도 그 햇볕정책이 옳았다고 확신하는지 다시 묻고 싶다.

이렇게 극도로 판이한 좌파 집권층의 북한의 일인 세습독재와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인식과 판단은 조국의 위기를 맞아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지키다가 영어의 몸이 되어 영원히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그들에 대한 인식이 일반 우리들의 그것과는 너무나 괴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엿볼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한사람의 억류 국군포로도 데리고 오지 못한 것에 대해 이유야 어찌됐든 우리는 역대 정부의 성의와 노력부족, 나아가 억류된 국군포로를 보는 시각이 어떠한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와 정부의 제일 첫째 의무는 자국민 보호에 있지 않은가? 더욱이 그들이 조국의 방위를 위하다 영어의 몸이 된 자들이라면 더더욱 말할 나위 없다고 생각된다.

다음 노무현 정권에 이어지면서 처음으로 정동영 통일부장관 때(2006)

41 임동원 (林東源) 저 "피이스 메이커(Peace Maker, 중앙도서 발행) P.474

남북간 장관회담에서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아무 성과도 없었고, 그 다음 이종석 통일부장관 때도, 그 뒤의 이재정 장관 때는 '포로', '납북자' 라는 북한이 금기로 삼고 있는 단어 대신 "전시 중 생사 불분명한 자들"이라는 해괴한 주제로 포로 문제와 납북자 문제를 다루려고 하였으나 이 또한 불발탄이 되었다.

노무현 정권 임기 말(2007년 10월)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방북, 경제 협력을 비롯해 국군포로 문제를 다루려 했으나 국군포로 문제에 관한 한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북한 인민무력부장도 일체 함구, 묵묵부답으로 대함으로써 국군포로 문제는 아예 논의도 되지 못했다.

(*** 노무현 정권에서 처음으로 국군포로 송환문제를 다루게된 동기는 국군포로 송환위원회의 미 국회에서의 수차례에 걸친 청문회와 또한 미 연방국회 회관에서의 포럼의 결과로 야기된 미 연방하원에서 몇차례의 "억류되어있는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돌려보내라"는 결의서 채택[42]과 또한 당시 미 하원 외교분과 위원장이었던 헨리 하이드(Rep. Henry Hyde) 의원 부시 행정부의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본다.)

2007년 10월 열린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 일행과 동행했던 한 신문기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김장수 국방장관을 대동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그 옆에 최용건 인민무력부장이 같이 배석한 자리에서 국군포로 문제를 꺼내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갑자기 하던 이야기를 뚝 끊고 딴 곳을 쳐다보고만 있어 회담 분위기가 냉랭해지더라"고 하였다.

또 북한을 떠나는 날 김장수 국방장관이 김정일과 같이 앉아있는 최용건 인민무력부장에게 "국군포로 문제는 일단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자 김정일은 천장만 쳐다보았고, 옆의 최용건 인민무력부장은 그렇다는 뜻의 표정을 지었지만 역시 아무 말도 없이 묵묵부답이었다고 전해 주었다. 이로써 노무현 정권의 국군포로 송환문제는 다시 더 거

42 미 하원의 국군포로 및 납북자 (일본인 포함)들의 송환및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경고를 담은 결의서는 2005년 5월에, 2006년 7월27일에도 또 그다음해인 2007년에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의서 HR376호는 2011년 13일에 미 하원을 만장 일치로 통과되었다.

론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그 다음 이명박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정권인수식에서 국군포로송환 문제에 아주 열의를 보이는 듯 하였으나 남북간의 경색된 정국은 그것도 결국 말잔치로 끝났다.[43]

이상이 필자가 알고 있는 표면에 나타난 대한민국 정부의 포로송환에 대한 노력의 전부다. 그 중에서도 노무현 정권 때 포로송환 문제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북측에 제기한 것은 미국의 압박과 국내 여론에서 포로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고, 또 노 대통령 자신도 군생활을 한 적이 있었고 또한 이어간 햇볕정책으로 남북관계가 비교적 좋은 편이어서 포로문제를 꺼낼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물론 역대 정권에서 북한과는 항시 물밑 접촉이야 있었겠지만 포로문제에 관한한 한번도 공식적인 회담에서 언급된 적도 없었고 따라서 어떠한 가시적인 노력도 엿볼 수 없었다는 것이 필자가 알고 있는 실정이다.

B) NGO(비정부기관)들의 노력들:

1) 국군포로송환위원회(Korean War POW Affairs)는 비 정부기관(NGO)으로서 미국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에서 2004년 한국전 참전자들을 주축으로 발족되어 본격적으로 국군포로 송환활동에 나섰다.

그 첫째 과제가 과연 북한에 국군포로들이 억류되어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생존하고 있는가? 왜 그들이 억류되어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송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송환위에서는 우선 국방부에서 발행된 포로에 관한 가능한 모든 문건을 다 읽어보았다. 생존여부는 몰라도 포로가 억류되어있다는 것은 확인 되었다. 그러나 그 숫자는 서류마다 차이가 있었다. 그 다음은 탈북한 국군포로들을 직접 만나봤다. 당시 1994년부터 그 이후 한국에

43 이명박 정권의 정권인수위의 국방부 인수위원장 황진하씨는 인수식에 앞서 "국군포로 송환 문제는 현 정권의 가장 으뜸가는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다" 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탈북해 온 국군포로들의 수는 2004년에 이미 67명에 이르렀다.[44] 우리는 탈북한 국군포로를 모두 다 만나기를 원했지만 처음 만날 수 있었던 숫자는 불과 6명에 지나지 않았다.[45]

나중에 들었지만 탈북자 전부가 북한에 가족들이 남아있어 혹시 자기들이 신문에 노출되면 북한의 가족들이 처벌 받을 것이 무서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만난 결과부터 이야기하면 a) 아주 많은 국군포로들이 억류되어 있다는 사실, b) 모두가 너무 연로하여 이제는 자기 발로 걸어 탈출할 형편이 못 된다는 것, c) 억류 중에는 전부 강제노동에 종사했는데 너무 나이가 많아 기력이 쇠퇴하여 이제는 강제노동에서 풀려나와 살고 있다는 것, d) 1956년 김일성 지시에 의한 내각명령 143호에 따라 이제는 포로라는 신분이 없어지고 공민증을 받아 표면적으로는 일반인들과 차별이 없지만 실제로는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것 등이다.

예로 들면 당에 입당, 자제들의 대학진학, 군 입대 등이 허용되지 않고,[46] 식량이 부족하면 맨 먼저 국군포로 가족들부터 배급이 중단된다는 것, 그리고 항상 공안당국의 감시하에 있다는 것 등 표면상으로는 차별을 안받는 것 같지만 사실상 사회의 밑바닥에 속하여 그 자녀들이 아버지가 국군포로라는 것을 몹시 부끄러워 한다는 것, e) 현재 생존자의 숫자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 (행적 연락이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아마도 100명부터 500명 사이일 것이며 북한 공안당국은 그 정확한 숫자를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것, f) 지금은 그 생존자들도 거의 치매에 걸려있거나 신체가 자유스럽지 못한 식물인간이 많을 것이라는 이야기들이었으며, g) 미국포로는 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한번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이것은 필

44 2012년 현재 남한으로 탈북해온 국군포로의 숫자는 87명. 이중 현재 생존자는 60여명이다.

45 2004년 11월18일에 한국 여의도에 있는 63빌딩의 식당 Garden Roof에서 당시 김문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Suzanne Scholte(미국 인권단체 Defense Forum 회장), 남신우(북한인권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탈북 국군포로로서는: 조창호, 장진환, 김대성, 유영복, 박홍길, 허재석씨 6명과 가족 2명, 도합 8명과 이쪽 6명, 전 12명이 같이 만났다.

46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실제로는 이러한 제약들의 대부분은 1980년도 이후 부터는 어느정도 완화 되었음.

자가 미국사람들을 만나 국군포로 송환 일을 한다고 하면 100% 첫번째 질문이 "미군 포로는 몇사람이나 잡혀있느냐"는 질문을 받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할 것으로 생각). h) 국군포로 중 많은 사람들이 북한 인민군에 강압적으로 편입 되었다는 점 등의 정보를 얻었다.

그리고 당시의 한국정부(노무현정권 때 이야기)가 포로송환 문제에 열의가 없어 보여 우리 국군포로송환위원회가 미 정부와 세계에 그 진상을 알려 한국전 참전국과 그외 인권 문제에 관심있는 각국의 협력을 받아 억류되어있는 국군포로들의 석방에 협력해줄 것을 호소하면서 한국전에서 실질적으로 UN 군을 지휘했던 미국의 연방의회 등에서 UN군의 지휘 하에서 함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싸웠던 대한민국의 국군만이 아직도 불법으로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탈북한 국군포로들을 미 국회증언대에 직접 세워 북한에 억류되어있었던 동안의 실상을 증언하도록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날 저녁에 참석한 국군포로 출신들에게 미의회에서 증인으로 나와줄 사람을 물었으나 모두가 고개만 숙이고 말이 없었는데 유독 조창호라는 사람만이 자기가 자진하여 증인이 되겠다고 했고 또 한사람은 만약 자기 이름을 가명으로 해준다면 증인이 되겠다고 했다.

필자가 모든 경비와 신분의 안전을 책임지겠노라 했는데도 증언대에 서는 것을 꺼리는 이유는(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가족들에게 어떠한 보복적 조치가 있을 것을 두려워해 표면에 나서기를 꺼린다는 이야기 였다.

그러나 조창호 중위는 1994년 탈북 이후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기에 "저는 언제든지 불러주면 어디서나 언제나 누구 앞에서나 실정을 증언하겠다" 하는 언약을 받았고, 또 한사람은 전술한 바와 같이 가명으로 해준다면 증언대에 설 수 있다는 언약을 받고 같이 갔던 인권운동가 디펜스 포럼(Defense Forum Foundation)의 수잔 숄티(Suzanne Scholte) 회장의 도움으로 그 이듬해 인 2005년 4월 24일 마침내 미 국회의원 회관(Rayburn Hall)에서 "억류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포럼"을 열게 되었다.

그때 많은 청중(미 국회의원, 보좌관, 참전국 대사, 영사 및 주재 무관

들)이 아직도 국군포로들이 못 돌아왔다는 이야기에 모두 놀라워했다. 또한 고 조창호, 김창식(가명) 두 탈북 포로가 참혹했던 북한에서의 포로 생활의 실상을 증언하자 북한의 그 비인도적인 처우에 매우 놀랐다.[47]

필자는 이 포럼의 주제 연설에서 "한국전은 양대 진영의 이데올로기 전으로서 당시 팽창일로의 공산주의 진영과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이념의 양대 이데올로기의 대결장이 되었으며, 우리 대한민국은 유엔군 지휘 하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다 같이 목숨을 걸고 싸운 혈맹국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전이 된지 50여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근 8만명에 가까운 대한민국의 국군포로들만은 아직도 적에게 억류되어 정전된지 근 50년이 지나도록 못 돌아오고 있는 현실에 대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는지, 당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싸우다가 부상을 입고 퇴역한 한 노병으로서 여러분에게 이 억류된 포로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같은 목적을 위하여 같이 피를 흘렸던 혈맹의 나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도 고향을 그리며 죽어가는 지난날의 전우들을 그대로 방관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불행한 지난날의 전우들이 죽기 전에 자기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그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전쟁이 끝난 지 어언 52년.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지난날의 우리의 전우는 외로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등의 내용으로 그들 특히 미국의 적극적인 도움을 호소하였다.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유엔군의 지휘 아래 유엔군의 일원으로서 싸웠던 대한민국 국군의 포로문제는 휴전협정과 포로교환 문제에 서명한 유엔 사령관에게, 궁극적으로는 UN안보리 84호에 의해 설치된 UN군에 최종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UN군 역시 특히 실질적으로 UN군을 지휘한 미국군의 막대한 희생 위에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살아남아 북한의 인민공화국보다 월등히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 포로문제를 책임져야한다고 운

47 미해군장관을 역임한 퇴역 해군제독 빌 미든돌프 (Bill Middendorf)회장이 필자의 연설직후 축사차 등단, 첫 마디가 "휴전이된지 5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국전의 포로들이 돌아오지 못했다는 말은 실로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운하기에는 마치 물에 빠진 자를 구해줬더니 이제와 보따리까지 내놓으라는 격인 것 같아서 다만 같은 목적을 위하여 싸운 동맹국으로서 그들 송환에 적극 도와 달라는 정도 이상으로는 말할 수가 없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동년 5월 25일에 미 하원 외교분과위원장인 헨리 하이드 의원이 주동이 되어 "북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불법적으로 억류하고 있는 국군포로들과 또 일본인 납치자들과 세계 각국에서 불법으로 납치한 자들을 즉시 석방하고 또 북한은 열악한 인권문제를 개선하라" 는 결의서 HR #168을 그 해(2005) 5월 24일 만장일치로 미하원은 통과 시켰다.

필자는 이 결의안이 통과되자 곧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서울에서 고 조창호 중위와 그 부인, 그리고 조 중위의 군 동기인 이완춘(李完春) 퇴역 중령과 같이 국회의사당의 한나라당 당 대표실에서 한나라당의 황진하 의원, 전여옥 의원과 같이 그 자리에 입회했는데 박근혜 대표는 저와 지팡이에 의지해 서 있는 조창호씨를 보자마자 "저희들은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이 먼 곳까지 노 박사님께서 찾아와 저희들이 진작 했어야할 일을 걱정하게 해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먼저 사과 말씀부터 시작하여 "국군 포로 문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말도 듣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2006년 3월 24일 날짜로 '국군포로 처우에 관한 건' 이라는 종전의 법이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7895호' 로 개정되어 국군포로 본인뿐만 아니라 동 법률 제15조-(1)의 "국방장관은 제 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불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이제는 북한 출신의 탈북 가족들에게도 남한의 국군포로 가족과 같은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이는 북한에서 억압과 차별대우를 받아오던 탈북 국군포로 가족들에게는 명예회복과 함께 경제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는 법으로 개정된 것이다. 그러나 당시(2005년)의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의 대표(당시 이부영씨)와 당 간부들을 만난 결과는 매우 대조적이었으며 아주 실망적이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우리가 아무리 힘을 써도 잘 안된다"는 성의없는 답변만

되풀이 하였고 그 뒤를 이어 당 총재 문회상씨를 면접하려고 필자의 고향 출신 여당 의원을 통하여 면담을 청하였으나 "포로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니 만나봐야 별 할 이야기가 없으므로 차라리 안 만나는 것이 피차간에 좋겠다"는 면담 거절 회답만 돌아왔다.

이러한 열린우리당의 태도는 국가를 지키다가 영어의 몸이 되어 50여 년 이상 동토의 땅에서 지옥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억류된 국군포로 문제에 대하여 북한과의 관계를 우려하는 여당으로서는 별로 성의가 있어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는 야당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성의 어린 태도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법률 제 7895호가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보면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국군포로 문제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만 불행히도 필자가 당시의 여당 간부들로부터 받은 인상은 포로송환 문제에는 별로 성의가 있어 보이지 않아 크게 실망하였다.)

한편 미국 연방의회 하원에서는 2006년 4월 27일 헨리 하이드 하원 외교분과위원장 주동으로 미 국회하원에서 "북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청문회"가 개최되어 우리는 한국에서 고 조창호 중위를 초대하여 증언대에 세웠다.

필자는 그 청문회에서 미국 국회의원들이 약 6시간이나 되는 긴 시간동안 점심도 먹지 않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을 열심히 경청하는 그 진지한 태도에 정말로 존경을 금할 수 없었다.

그날의 증언에는 일본의 메구미 요고다(惠 橫田) 어머니의 눈물겨운 호소와 탈북 국군포로 조창호 중위의 북한에서 억류생활의 실태, 그리고 납북 되었다가 탈북해온 한국 어부 한 분의 억류생활 실태의 증언이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군 국군포로들과 메구미 요고다를 포함한 일본인 피납자와 기타 납북자들을 인도주의에 입각, 즉시 돌려 보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들을 경고하는 미하원 결의서 HR #234를 동년 5월 24일자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서는 당연히 한국 노무현 정권에게 압력으로 작용하여 그 뒤 북

한과의 장관회담에서 또한 그 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 시에도 북한에게 포로송환 문제를 제외하게 만들었다고 본다.

우리 국군포로송환위는 그해(2006년) 11월 제네바의 국제인권위원회에 직접 탈북 국군포로인 고 조창호씨를 대동 참석하여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도적인 국군포로 억류 사실을 폭로하려고 미국의 인권문제에 단체에서도 가장 유력한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를 통하여 참석 허가를 받아 두었으나 애석하게도 조창호 중위가 아오지 탄광에서 얻은 병세(기폐증이 폐암으로 발전했음)의 악화로 작고하게 되어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본 송환위는 그 뒤에도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외교통상부의 북한 대사와, 국방부의 대북정책과, 국회의 국방분과위원회의 여러 의원들에게 늘 포로문제 해결을 해주도록 부탁하였지만 그들도 별 뾰족한 수가 없어보여 한국 정부 차원에서의 가시적인 노력은 엿볼 수 없었다.

2010년 이명박 정권수립 이후의 강경한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에 따라 남북간의 대화의 여지는 없어졌고, 억류되어있는 국군포로들의 나이를 감안 할 때 생전에 그들을 송환한다는 것은 거의 절망적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본 송환위에서는 이 문제를 UN에 부탁하여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 외에는 별 방도가 없다고 결론, 2010년 한국을 방문, 박근혜 의원, 황진하 의원, 박진 의원, 그리고 외통부의 북한대사, 국방부 담당 관계 이상철 준장 등 만나는 사람마다 송환문제 해결을 남북간의 대화로만 풀려고 시간을 더 지체 말고 "UN이 한국전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이 문제를 UN 에 넘겨 그 도움을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UN이 한국전에 관여한 UN안보리 결의서 제 82호, 83호, 84 호, 85호[48]의 사본과 또한 우리가 NGO로서 UN에 낼 탄원서의 내용도 상세히 설명하면서 그 사본도[49] 함께 전달하였다.

또한 당시 현인택 통일부장관을 통일부에서 만나 2시간 이상이나 면담하면서 포로송환 문제는 결국 UN의 힘을 빌리는 방안밖에 없지 않겠

48 별첨 사본 참조 (별첨 D)
49 별첨 사본 참조 (별첨 E)

느냐는 의견과 우리가 NGO로서 UN에 제출할 송환문제에 대한 진정서의 사본과 또한 우리 송환위가 북한 김정일 정권을 헤이그(The Hague, Netherlands)에 있는 ICC(국제 형사재판소)에 정식 고발하겠노라고 고발장 사본도[50] 같이 전달하였다. 이 2시간 이상의 회담에서 현 장관은 한마디의 말도 없이 그저 듣고만 있었다.

그 뒤 우리는 예정대로 2011년 2월에 김일성 정권을 세습 받은 김정일 정권을 정식 전쟁범죄자로 고발하였으며, 4월에는 UN인권위에 포로송환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방대한 법률적인 논거와 또한 탈북 국군포로들의 증언들을 직접 수집하느라 우리 송환위의 법률 고문인 김한회 박사가 근 1년 이상에 걸쳐 이 서류들을 만들었으며 그 노고에 대해 우리 송환위는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이렇게 힘들여 만들고 제출한 고발장에 대하여, ICC측에서는 일단 북한 영토에서 벌어진 전쟁 범죄는 ICC 관할권에서 벗어나서 ICC의 관할권 내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추가 자료가 없는한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ICC측은 포로들에 대한 전쟁범죄는 북한 영토에서 행해졌기에, ICC의 관할권이 행사할 수 없는 것임을 통보해왔다.

이에 우리측에서는 휴전협정 당시에 휴전선 내의 포로교환 구역은 북한 영토가 아니라 중립국 송환위원회에서 관할했던 지역이기에 그 지역으로 마땅히 이동시켜 송환 의사를 타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을 하지 않했기에 포로의 권리를 박탈한 행위가 성립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러한 권리 박탈 행위가 일어난 장소의 일부는 중립국 지역으로 볼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추가 자료를 보냈다.

이처럼 우리측은 ICC에 북한측의 일부 범죄행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여 달라고 재차 자료를 보냈으나 답변이 없었다.

한편 일부 국제법 법률전문가들도 관할권에 대한 우리의 주장이 ICC측에서 동의를 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일부 법조인들은 우리가 중립국 송환위원회 관할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

50 별첨 사본 참조 (별첨 F)

는 답변서에 대해 ICC측에서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측이 최근에 받은 의견 중에는 권오곤 판사를 보좌하는 UN유고 재판소 소속 변호사가 개인 의견에서 정확히 이유를 지적하지 않았지만 영토와 관할권에 대하여 우리측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ICC측이 받아들이지 않을것 같다는 의견이다.

가장 큰 문제는 ICC의 관할권이 있는 남한 영토에서 발생된 포로를 획득하는 행위 자체는 전쟁 범죄가 아니지만, 포로를 생포하여 학대하고 억류한 행위는 북한 영토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우리는 강력히 지적 하였다.

그런데 김박사가 2013년 헤이그의 ICC를 직접 다시 찾아갔던 바 ICC에서는 우리 송환위가 보낸 독촉장에 대해 여러가지 보충 추가재료가 필요하다는 이메일 회신을 필자에게 보냈다는 사본을 보여주면서 자기들이 우리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말을 듣고 왔다.

내가 그 이메일을 받지 못한 것은 그 시기에 저의 컴퓨터가 고장났던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UN인권위에 낸 탄원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하등의 반응이 없어 우리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제 6 장 |

포로문제 해결 방법은 없을까?

포로문제 해결 방법은 없을까?

한국전의 총소리가 멈춘지도 어언 60여년, 조국의 위기에 꽃 같은 청춘을 바쳐 조국을 지켰건만 조국은 적지에서 영어의 몸이 되어 이제는 80대의 인생 끝자락에 매달려있는 그들을 구출하지 못하고있다.

'동족끼리' 를 구두선처럼 뇌까리는 북한 조선인민공화국도 같은 민족인 국군포로 문제에 관한한 일체 그 존재를 부정만 하고 있어 같은 민족끼리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 이러한 와중에서 일부는 우리의 무력으로라도 그들을 탈환해 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퇴역 장교들도 있었다. 다음은 그 중 몇가지 한국정부 내에서 검토한 방법들을 열거한 것이다.

a)엔테베(Entebbe)식의 구출작전:[51]

한국의 퇴역 장교단 일부에서 이스라엘의 엔테베 작전(Entebbe Raid)처럼 우리도 특공대를 직접 보내 구출작전을 하자는 말도 있었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으로 보인다.

그 첫째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과의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고 또한 국군포로들이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모여 산다거나 수용되어 있지 않고 여러 곳에 분산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엔테베 작전 같은 것

51 '벼락작전'(Operation Thunderbolt)이라고 불린 '엔테베구출작전'(Entebbe Raid 1976년 7월 4일 새벽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우간다의 엔테배에 인질로 잡혀있던 유태인 승객 200여 명을 이스라엘 특공대가 지휘관 단 한사람의 전사자만 내고 순식간에 전원 구출한 작전을 말함.

은 감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엔테베 작전은 이스라엘 정부의 단호한 결심과 또 납치된 자들이 한 곳에 집결되어 있었고 그 숫자도 불과 200여명밖에 안되었다는 점에서 억류 국군포로들 문제와는 사정이 전혀 다르며 이는 단순히 감정론에 사로잡힌 실현성이 전혀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b) '전시중 생사 불분명자' 들[52] 이라는 이름으로서의 교섭:

노무현 정권 말기의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이북이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포로', '납북자' 라는 말을 대신하여 '전시중 생사 불분명자' 라는 용어를 대신 사용하여 북한 김정일 정권과 교섭하려 하였으나 노무현 정권이 곧 끝남으로써 북한과 접촉할 시간도 없이 불발탄으로 끝났다.

c) FREIKAUF[53] (돈으로 자유를 사는) 방법:

노무현 정권 뒤를 이은 보수파 이명박 정권이 탄생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은 포로송환 문제에 큰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북한 김정일 정권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즉시 이명박 정권에게 김대중의 6·15 공동성명과 노무현 정권의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를 촉구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명박 보수정권과는 일체 상대하지 않겠다는 성명서와 함께 일체 공식 접촉을 중단했으며 이후 정국은 경색일로로 치닫게 되었

---

52 북한 조선인민공화국에서는 "국군포로"는 존재하지 않고 또한 "납북자"는 모두가 "자진 입북한자"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정동영 통일부장관때 남북장관회담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문제"를 그해 11월의 남북간적십자 회담에서 토의 하기로 합의 하였으나 11월의 적십자 회담에서 남한대표가 "납북자 문제와 국군포로문제를 토의합시다"라는 말이 떨어기가 무섭게 "납북자는 무슨 납북자냐 모두가 자기 발로 걸어 입북한자들인데 그따위 소리하려면 회담 집어치우라오" 하면서 나가버려 회담이 성사되지못한 전례가 있었다.

53 Freikauf란 서독이 동독에 수용되어있던 정치범들을 경제적 보상을 해주고 서독으로 데리고 온 방법으로 1964년부터 1989년 동독 붕괴까지 지불한 돈이 3.4억 DM (1990년도 환율로 환산 $2.3.4 billion)를 지불, 33,755명을, (1인당 4,000 말크식 지불하고) 데리고 왔음. 이 액수는 서독이 1964년부터 1989년 까지의 한 경제원조를 포함한 것이며 현금외에도 물자로 지불한것을 금액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임. 여기에서 재미있는 점은 인간의 평등을 부르짖는 사회주의 동독 정부가 Freikauf 지불에서 일반 노동자는 1인당 1,875DM, 박사 및 의사는 1인당 11,250 DM를 받고 석방했다는 사실이다. (Wikipedia의 German Ransom란 참조)

다. 따라서 남북간의 기류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제의할 형국이 못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포로문제를 독일의 Freikauf(돈으로 자유를 산다는 뜻) 식으로 경제적 보상을 주고 포로들을 데리고 오자는 안도 국방부 내에서 토론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실무 최고책임자로부터 직접 들은 바 있었지만 현재까지 결론도 실천도 못되고 있다.

여기에 독일과 한국의 입장이 좀 다른 점을 우선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첫째는 동독과 서독은 전쟁을 치르지 않았다. 따라서 상호간 적대감이 남아있지 않고, 또한 포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둘째는 동독은 북한처럼 일인세습 독재 체제가 아니었다. 셋째는 Freikauf식이라도 포로라는 이름으로서는 포로가 없다고 선언한 김일성 세습 왕조 체제하에서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제 3세인 손자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한국전과는 별로 기억도 연고도 없는 자로서 지금 새삼 포로 문제를 언급해봐야 관심이나 가질지도 의문이다.

d) UN을 통한 방법:

포로송환 문제는 국군포로를 억류하고 있는 북한의 협력 없이는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어떻게 하든 북한과 협상할 기회를 가져 그들의 협력을 얻어야만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지난날의 몇차례의 회담에서 북한은 항상 북한 안에는 포로가 없다는 공식 입장만 견지해왔다. 그리고 현재의 남북간 대치 상황은 남북 회담의 기회나 또한 포로나 납북자 문제를 논의할 기회가 전혀 없어 보인다.

이러한 정치국면에서 본 송환위원은 몇 차례나 대한민국 정부에 건의한 바와 같이 UN의 주도하에 인도적인 면에서도 남북이 서로 논의할 기회를 갖도록 UN의 힘을 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는 북한과 서로 만나 이야기를 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끝내 북한이 UN의 종용에 응하지 않으면 부득이 UN 인권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에 직면하겠지만 그렇다고 수

만명의 포로들이 죽어가는데 우리가 남북통일이 될 때까지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할 것인가.

만일 한국정부에서 이것도 가능성이 없다면 북쪽과 비공식 물밑 접촉을 통해서라도 이산가족 상봉 때 가능한 많은 국군포로들도 가족 상봉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사실 장교출신을 제외하고 사병의 경우 남한에 연고자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그 상봉 때 한국정부 차원에서 국군포로들에게 전사자에 지불하는 정도의 보상(외화 현금으로)을 해줌으로써 그들이 북쪽에서 남은 여생을 그래도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부가 못다한 의무에 대한 최소한의 속죄가 되지 않을까?

그러나 오늘날 이 시점까지도 대한민국 정부가 UN에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촉했다거나 어떠한 제안도 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하였다.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았던 6·25 초전의 위기 때 그토록 "조국을 지키라"고 애원 절규했던 대한민국 정부는 오늘날의 이 번영 속에서 과연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아닐까.

더욱이 선진국들이 자기나라를 지키다가 산화한 병사의 유해, 유물이나 또 포로 구출에 쏟는 그 정성들과 비교하면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또 다시 국가 위기가 올 때 과연 뭐라고 국민들에게 나라를 지키도록 호소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국가가 자국민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만 나라를 지키라고 호소한다는 것이 과연 앞으로 국가위기가 닥칠 때 국민들이 얼마나 나라에 충성심을 발휘할지 염려하는 것이 단순한 노파심으로만 끝났으면 한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 남한의 풍요 속에서 북한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조국을 위하여 희생한 그들이 없었다면 과연 가능했을까? 그러한 면에서도 남한의 국민들 또한 그 희생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오늘날 굶주림을 피해 북한에서 탈북해오는 동포들에게 따뜻한 구호의 손길을 뻗는 것은 인도주의적인 면에서나 곤궁에 빠진 같은 민족을 돕는다는 면에서도 참으로 아름다운 고귀한 정신임은 말 할 나위 없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택이지 필수가 아니다.

반면 국군포로 송환문제는 우리의 필수적인 의무이다. 전자는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켜준 적도 없고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적도 없지만 국군포로들은 목숨을 담보로 우리를 지켰고 오늘날의 번영의 기틀을 만들어주었다. 이러한 면에서 탈북자 구호와 국군포로 송환문제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지 않을까? 필자는 굶주림과 폭정에 못견디어 탈북해온 동족을 외면하자는 것이 결단코 아니다. 다만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 제 7 장 |

탈출 국군포로들의 현황 (남한에서)

탈출 국군포로들의 현황
(남한에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담보로 탈북해 대한민국 품으로 돌아온 국군포로들의 숫자는 2013년 현재까지 78명, 이중 현재 생존자는 67명이다. 지금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탈북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새로 개정된 대한민국 법령 제7895호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국 땅에 정착하면 경제적으로 결코 적지 않은 보상을 받고 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C)을 참고) 여기에 대충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는지 적어보면, 일반적으로 보통 사병의 경우는 총 4억원 정도, 하사관은 5억원, 장교의 경우는 8억원까지이며 평균적으로 5억4천만원과 무료 의료혜택을 받는다.

물론 이 돈이 평생을 바친 대가로서 결코 많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대한민국의 실정으로 볼 때 적지 않은 금액임은 틀림없고, 이 돈만이라도 잘 절약해 쓰면 얼마 남지 않은 노후의 생계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액수이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의 상상과는 다르다. 처음에 국방부에서 이 돈 전액을 정착과 동시에 지불하다보니 평생을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살아온 그들은 돈 관리 능력이 없어 그 큰 금액을 곧 날리고 만다. 많은 경우, 보지도 듣지도 못한 먼 친척까지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느니 혹은 돈을 더 불려주겠다느니 하여 순식간에 그 돈이 없어지고 대부분의 탈북 포로들은 생활이 아주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돈을 돌려주지 않는 형제 친척 간에 깊은 앙숙의 감정만 남아 더욱더 외롭기만 하다.

그 외에 또한 가장 큰 고뇌는 북한에 남겨두고 온 가족들의 안위다. 탈

북한 국군포로들은 대부분 북한에 가족들을 그대로 다 놔두고 단신 탈출한 사람들이다. 남한이 비록 고향이라고는 하나 반세기 이상을 떠나있던 고향은 오히려 낯설기만 하고, 그토록 그리워하던 부모님은 다 세상을 떠났고, 낯선 친척들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한 고향산천에서 비록 굶주림과 사회적인 냉대는 벗어났다손 쳐도 북한에 남겨둔 혈육의 정이 더욱더 그리워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에서 전 인생을 보낸 그들에게 자본주의 제도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시점에 혼란스럽게만 느껴지는 것 같았다.

(***필자가 탈북 포로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본 결과 그들에게 너무나 불만이 많은 것을 발견하였는데 그 대부분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으로 판단되었다. 예를 들면 "왜 내 묘지를 왜 정부가 마련해주지 않느냐?" "왜 병원에 갔는데 돈을 지불해야 하느냐?" "손자가 학교를 가는데 왜 돈을 내라 하느냐" 등이며 필자가 "정착시 한국정부에서 준 적지 않은 돈은 다 그런 것을 위해 쓰도록 준 것인데 그 돈들은 다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면 "일가친척들이 빌려가 돌려주지도 않고 자기도 써버려 돈이 없다" 등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혼란과 이해 부족을 엿볼 수 있었다.)

이렇듯 자유와 풍요와 그토록 그립던 고국도 낯설기만한 각종 문물제도와 남겨두고 떠나온 혈육에 가슴 아리는 정은 그들이 남한에서도 결코 행복하기만 하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본다. 이 모두가 다 조국을 지키다가 영어의 몸으로 평생을 정치와 경제적 제도가 판이하게 다른 이국의 땅에서 살아온 그들만이 짊어져야할 어쩔 수 없는 불행한 운명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하지 않을까?

| 제 8 장 |

맺음말

맺음말

전쟁이란 어떠한 경우라도 악(惡)이라고들 말한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무고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많은 선량한 사람들을 불행의 도가니에 빠뜨리며 인간의 지성과 이성조차도 마비시킨다. 6·25 한국전 또한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아무리 전쟁이 악이라 해도 우리의 생존을 부인하는 적의 침공에는 나와 나의 가족을 위시한 같은 울타리 안의 겨레의 삶을 위하여 우리는 그의 침략을 격퇴시켜야하지 않는가? 전쟁이 아무리 악이라고들 한들, 생존이 없는 곳에서 선과 악을 논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은가? 세계 1, 2차대전에서 초래된 많은 파괴와 그로 인한 빈곤은 지구상에 급속한 공산세력의 팽창을 가져왔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생필품을 비롯해 모든 물자가 부족한 현실에서 보다 공평한 분배는 결국 강력한 중앙정부의 통제를 불러왔고 이를 위해 개인 소유의 사유재산제를 부인하고 또한 모든 생산수단을 사회(정부)가 장악하여 분배와 생산을 통제하는 중앙정부의 계획경제 체제의 사회주의가 빈곤한 국가에서부터 만연, 전 세계의 절반을 휩쓸며 사유재산을 토대로 한 자본주의와 대치했다.

이것을 우리는 사상전(Ideological Warfare)이라고 부르며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일제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우리의 조국이 또 다시 미 소 양대국에 의해 한반도의 38도선을 경계로 남과 북이 이 이데올로기전의 열전지로 변한 것이 1950년 6월 25일이었다. 그리고 3년 1개월동안이나 끈 이 한국전은 1,000만 이상의 이산가족과 250만명 이상의 생명을 빼았고, 3천리 금수강산은 완전히 초토화되었으며 김일성의 한반

도 적화통일의 꿈은 사라져 승자도 패자도 없이 일단 총성은 멈추었다. 그러나 같은 민족의 남과 북은 이 전쟁으로 더욱 더 증오와 불신의 골이 깊어만 갔고 세계적인 이데올로기 냉전은 소련의 붕괴와 함께 사라졌지만 새로운 중국의 경제대국으로의 부상은 이를 봉쇄하려는 미국의 극동정책이 또 다시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대륙세력과 미국과 일본의 해양세력의 충돌지대로 부상되어 조국 한반도의 통일은 아주 미묘한 형국에 놓이게 되었다.

한반도가 오늘이라도 분단이 사라져 통일국가가 된다면야 국군포로 문제와 납북자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고, 남북이 서로 군사증강에 쏟아붓는 그 엄청난 재화를 국민의 복지와 경제발전에 쓴다면 우리도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갈 가망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우리 민족끼리 서로 죽이는 일에 인적 물적 소모를 계속해야 한다니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필자의 그간의 오랜 연구 결과는 한국전에서의 국군포로의 운명은 이미 공산진영에서 최대한 많은 포로들을 억류하여 그 노동력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계획이었다는 것이 구 소련의 외교문서에서도 또한 정전협상 중에도 북쪽의 이상조(李相朝) 부대표의 필사적인 휴전감시단 산하의 세계적십자 위원의 북한 억류의 국군포로 면접 거절 등으로 처음부터 국군포로들은 돌려보낼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 명확해 보였다.

이러한 와중에 정전협상에서는 군 지휘권 없는 한국군 대표는 그저 구색으로만 참석하게 되었고 미국 내 한국전의 반전 기운은 포로송환 문제에 더 이상 시간을 낭비 못하게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 결국 오늘날 많은 국군포로들을 적지에 남겨둔 채 정전협정이 맺어진 것이다. 국가의 위기 때 그토록 "조국을 지키라"고 외쳤던 대한민국 정부는 "한사람의 포로도 없다"는 북한에 대해 포로 문제로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정책에서 (***임동원 저 "피스메이커"에 잘 나타나있음) 적극성을 띠지 못했고 (*** 노무현 정권 때도 그저 국민들의 눈과 귀를 의식하여 김정일에게 직접 이 문제를 두번 제기했을 뿐) 역대 정권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룬 적은 없었다고 본다. 이것은 미국, 이스라엘 등 나라가 자기 나

라를 지키다가 희생된 자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지와 아주 대조적이 아닐 수 없다. 65년전 조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았을 때 조국의 방위를 위하여 내 한 목숨 조국에 바쳐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선 참전용사들 중 많은 장병들이 적탄에 쓰러졌고 많은 장병들이 적의 볼모가 되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존립과 번영과 자유가 과연 그들의 희생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특히 조국 방위를 위하여 싸우다가 불운하게도 적의 볼모가 되어 한평생을 지옥과 같은 적지에서 남쪽 하늘만 바라보며 한 많은 삶을 마감하고 있는 억류된 국군포로들의 운명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65년이 지난 지금 그 비참했던 6·25 한국전도 그를 기억하는 세대들이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다. 따라서 조국을 지키다가 볼모가 된 그들의 존재 또한 서서히 우리의 뇌리에서 잊혀져가는 것 아닌가?

과연 그들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렸나?"